

## 미국의 흑인운동\*

### 이 신 행

이 논문은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데에서 ‘部門’, ‘領域’, ‘公共區域’ 등의 개념이 유용한 분석 도구가 되리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이 논문은 미국사회 흑인운동의 주요 움직임들이 部門, 領域, 그리고 公共區域의 어느 편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보다는 현대 미국사회 흑인운동의 중요한 흐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치중하였다.

미국사회 흑인운동의 두 가지 큰 흐름은 ‘統合主義的’인 것과 ‘分離主義的’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그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다.

모든 사회운동은 상징·가치를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경향과 상징·가치에 치중하기 보다는 조직활동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사회의 흑인운동들 중 통합주의에 기초하여 상징·가치를 강조한 운동의 예로 마르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을 들었고 이러한 통합주의적 정신을 조직운동에 응용한 예로 NAACP(National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를 들었다. 그리고 통합주의와는 다른 지향으로서 분리주의에 기초한 흑인운동의 대표적 예로는 말콤 엑스(Malcolm X)와 마커스 가아비(Marcus Garvey)를 들었다. 이 가운데 말콤 엑스는 상징·가치를 강조하였으며 가아비는 분리주의 정신을 조직(UNIA)에 응용하였다.

### I. 序論

미국사회 흑인운동의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인 ‘統合’과 ‘分離’라는 두 주제는 알렉스 해일리(Alex Haley)의 소설『뿌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sup>1</sup> 7대에 걸친 쿤타 킨테家の家族史에서도 ‘統合’과 ‘分離’를 축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흑인들의 삶이 나타난다.<sup>2</sup>

캠비아 해안 근처 주프레 마을에서 토흐봄에 의해 불잡힌 후 노예선에 실려 아나풀리스로 온 쿤타 킨테의 삶은 자유를 향한 탈출의 반복과정이었는데, 4번에 걸친 탈출의 과정은 끊임없는 자기확인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기확인의 과정을 거쳐 쿤타 킨테가 도달한 것은 ‘분리’의 당위였다. 이 밖에도 알렉스 해일리는 하이티 투산의 폭동, 네트 터너의 폭동, 그리고 흑인연합운동 등을 틀틈이 묘사함으로써 흑인들의 삶에 면면히 흘러온 말콤의 주제가 얼마나 끈질기고 때로는 화산처럼 폭발적인 것인가를 보여주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1) 흑인운동의 ‘통합주의’와 ‘분리주의’라는 두 흐름의 중요성은 Darren Cushman-Wood, “Martin Luther King Jr. and Malcolm X: Economic Insights and Influences”, *Monthly Review*, May 1993, pp. 21-35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2) 알렉스 해일리, 안정효譯, 『뿌리』, 1977.

었다.

킹의 주제는 노예해방 이후 세대인 선시아·월 팔머, 버사-사이먼 헤일리, 헤일리에 이르기까지의 삶에서 나타난다. 킹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킹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생애에서 나타나듯, 이들 흑인은 자신의 경제적·문화적·종교적·사회적 삶이 계한적이나마 서서히 미국사회에 통합되어 가면서 만족과 불만족의 교차를 경험한다. 특히 백인들로부터 목재회사 사장의 지위를 부여받은 월 팔머에게는 통합의 주제가 일종의 절정감으로서 표출된다.

1992년의 'L. A. 폭동'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미국사회에서 인종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말콤과 킹의 주제가 농동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두 주제는 60년대 말콤과 킹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대중의 직접행동, 폭발적인 강연, 격렬한 토론 등으로 그 힘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들이 미국사회에서 흑인들이 자기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공동체를 그리는 데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의 불씨는 꺼진 것이 아니라 재 밑에 묻혀 있어 언제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것이다.

## II. 分離主義 운동의 시작—가아비

미국 흑인운동의 전통 속에서 말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을 찾는다면 그는 가아비(Marcus Garvey)이다.<sup>3</sup> 크루즈(H. Cruse)가 지적한 것처럼 가아비는 미국 흑인역사에서 가장 큰 대중운동을 성취함으로써 말콤뿐 아니라 -분리주의자와 통합주의자를 포함하는- 모든 흑인운동가들에게 운동의 한 전형(UNIA)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남북전쟁과 남부제국의 재통합시기(Reconstruction)를 거치면서 흑인민족주의는 걸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었으며, 흑인들은 자신의 온 힘을 완전한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1870년대에 악명 높은 '헤이즈(Hayes) 타협안'이 타결되어 남부로부터 연방군이 철수하자 흑인에 대한 기존 노예주의 횡포는 오히려 심해졌으며, 미국사회에서 백인과 함께 평등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흑인의 기대는 요원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흑인민족주의를 부르짖는 소리가 커지게 되었는데, 흑백분리를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는 흑인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절망의 크기에 비례하여 강하게 나타난다.

가아비는 1914년 고향인 자마이카에서 UNIA(Universal Negro Improvement Association)를 창설했으며,<sup>4</sup> 1916년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 미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1차대전

<sup>3</sup> 말콤의 분리주의에 대한 관심은 가아비와 더불어 워싱턴(Booker T. Washington)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sup>4</sup> 가아비가 등장하기 이전의 대표적인 흑인지도자로는 통합주의를 주장한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 조절주의자인 워싱턴(Booker T. Washington), 그리고 흑인민족주의를 주장한 흑인 감리교 감독파(African Methodist Episcopal) 교회의 주교인 터너(Henry M. Turner) 등을 들 수 있다.

에 참가한 1917년에 할렘 지역에서 UNIA를 창설했다. 미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참전하였다가 전장에서 돌아온 흑인 병사들은 이제 국가가 자신들에게 백인과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주리라고 기대하였다. 전쟁 채권 등을 구입함으로써 국가의 전비를 일부 부담했던 일반 흑인들에게도 이러한 기대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은 더욱 큰 것이었다. 그리하여 몇 차례의 인종폭동이 일어났으나 이로 인하여 흑인들이 받게 된 것은死刑等 가혹한 형벌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KKK단(the Ku Klux Klan)은 뉴욕과 뉴잉글랜드주를 포함한 곳곳에서 흑인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가아비는 모든 아프리카인과 미국의 흑인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분명히 하였다. 가아비는 말콤과 마찬가지로 뉴욕의 할렘가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그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인 것이었다. 불과 두 달 안에 1,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5년만에 ‘수백만’에 이르는 회원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서인도제도,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sup>5</sup>

가아비는 *The Negro World*라는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미국 전역에 걸쳐서 흑인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강연여행을 다녔다. 이러한 활동을 펼친 것도 가아비와 말콤의 비슷한 점인데, 특히 가아비의 강연이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고향인 자마이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남미 각지에서 흑인들의 억압된 상태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왜 모든 곳에서 흑인들은 불평등과 차별의 대상이며 백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그의 강연은 “과연 흑인들의 정부는 어디 있는가?”, “흑인들의 임금과 왕국은, 흑인들의 대통령과 나라는, 흑인들의 대사는, 육군은, 해군은 그리고 흑인들의 지도자는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계속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결국 범아프리카 민족주의자(Pan-Africa Nationalist)인 가아비가 주장하고자 했던 요지는 교육을 받은 신세계의 흑인들이 앞장서서 아프리카에 독립된 흑인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백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흑인만의 자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모든 흑인이 뜻뜻이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미국시민으로서의 권한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도 그들의 정치권력의 원천이 되는 흑인 독립국가가 어딘가에 반드시 필요하다.<sup>6</sup>

전략적으로 그는 전세계의 흑인들이 모두 흑인의 해방을 위하여 나서야 하며 특히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선택적인 식민’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기술자, 교육자, 의사 등이 전위대로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UNIA는 그 산하에 기선회사, 흑인공장조합, 교회조직(African Orthodox Church),準군사조직(Universal African Region), 간호원조직, 자동차 및 항공조직, 흑인정치조직(Negro Political Union)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신문도 발행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능상의 분담이었다.<sup>7</sup> 가아비

5 E. U. Essien-Udom, “Garvey and Garveyism”, Eric Foner ed., *America's Black Past: A Reader in Afro-American History*, 1970, p. 359.

6 *Ibid.*, p. 350.

7 *Ibid.*, p. 359.

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흑인들은 대부분 하층계급이었다.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해 온 흑인에게는 북부 역시 악속의 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남부 농촌지역에서와는 달리 북부 도시로 이주한 흑인들은 일정한 거주지역(ghetto)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가아비가 주장한 흑인민족주의(black nationalism)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sup>8</sup>

백인 인종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가아비는 흑인의 인종적 자부심과 고유한 역사를 강조하였다.<sup>9</sup> 그는 흑색을 강함과 아름다움으로 상징화하였으며, 흑인이 스스로 자신의 조상에 대하여 존경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sup>10</sup> 흑인이 정치적 경륜을 쌓기 위해서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기획한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검은 피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흑인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일을 해 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일어나라, 너 능력있는 인종아!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낼 수 있다.” – 이것이 가아비의 멘세지였다. 그리고 그는 흑인만의 문화를 확립하고 그들의 모국인 아프리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미국 흑인들이 아프리카로 이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11</sup> 이것은 착취와 억압 하에 살면서 자신만의 국가를 가지고 싶어하던 많은 흑인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sup>12</sup> 가아비는 합법적이고 도덕적이며 정당한 국가를 아프리카에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가 당장 모든 흑인이 한꺼번에 미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sup>13</sup>

가아비와 UNIA가 주장한 분리주의는 백인과 통합된 사회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NAACP의 이념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었다.<sup>14</sup> 가아비에 의하면, ‘통합’은 영터리 흑인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의 자기쾌배적인 철학에 불과하다. 그는 통합론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난한 흑인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무시한 채 백인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공격하면서, 특히 NAACP와 NAACP에서 발행하는 잡지 *Crisis*의 편집자이자 대표적인 통합론자의 한 사람이었던 듀 보이스(W. E. B. Du Bois)에 대하여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다. 듀 보이스와 NAACP에 대한 가아비의 비난은 이후 더욱 격렬해지는데, 이것은 결국 가아비가 자마이카로 송환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통합주의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말콤에 이르러 더욱 분명하게 계승된다.<sup>15</sup>

<sup>8</sup> Cedric J. Robinson, *Black Marxism*, 1983, p. 127에서 재인용.

<sup>9</sup> Tom Wicker ed., *Report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 p. 221.

<sup>10</sup> James M. Banner Jr., James M. McPherson, Laurence B. Holland, Michael D. Bell, and Nancy J. Weiss, *Black In America*, 1971, pp. 201-203.

<sup>11</sup> Tom Wicker ed., *Report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 p. 221.

<sup>12</sup> Cedric J. Robinson, *Black Marxism*, p. 307.

<sup>13</sup> Ibid., p. 341에서 재인용. 그러나 가아비가 죽은 후 그의 동지이자 첫번째 아내인 애미 가아비(Amy Garvey)는 그가 결코 아프리카로의 대량이주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가아비의 적들이 그의 영향력을 실추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주장하였다.

<sup>14</sup> Ibid., p. 298.

<sup>15</sup>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1992, p. 13.

UNIA는 가아비의 철학이 갖는 극단성에 입각하여 현실적인 조직지향성을 떠고 나타났다. 즉 UNIA는 가아비의 이상주의적인 분리운동이 그의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현실태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UNIA의 활동은 비록 그 발상 자체로는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가아비의 변동성을 담은 것이었으나, 미국의 많은 다른 흑인운동과 마찬가지로 체제내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sup>16</sup> 1910년대가 흑인사회에 대한 압박은 그러한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따라서 이것은 1950-60년대에 말콤이 주장한 상대적 폭력론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아비는 그들이 만들어 내려고 하는 국가가 특히 자본주의 경제를 수정한 형태로서 경제적으로 강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17</sup> 그는 부르조아지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주의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지향성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표출하기도 하였다.<sup>18</sup> 가아비는 모든 세계가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와 같은 형태의 정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19</sup> 가아비의 운동이 남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북부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것도 이러한 좌파적 경향성이 남부의 흑인들에게 잘 수용되지 않은 까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20</sup>

물론 그가 흑인의 문제를 사회경제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인종문제'로서 생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흑인문제를 계급적인 차원에서도 고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바닥에 위치한 흑인들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였던 것도 사실이다.<sup>21</sup> 가아비는 UNIA를 통해서 식료품점, 식당, 세탁소, 호텔, 인쇄소 등의 체인을 조직하여 흑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자구활동을 통해 흑인의 상황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워싱턴(Booker T. Washington)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sup>22</sup> 그리고 그는 다목적적인 관심으로 중기선 사업(The Black Star Line)을 벌이기도 하였다. 가아비가 벌인 흑인 自救的 프로그램들은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그는 궁극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조합조직을 건설하여 흑인해방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23</sup>

가아비는 흑인 지식인들(intelligentsia)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가아비를 선동가로 간주하였으며 “아프리카로 돌아가자(back to africa)”는 그의 구호를 매우 비

16 미국에서의 (흑인운동에서 나타난 좌파성을 포함하여) 좌파운동은 미국사회의 다원성과 산업사회적 특성,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미국사회에 내재한 종교적·사회적 가치 등을 놓고 볼 때 군사적이고 파괴적이며 계릴라적인 형태를 떨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7 Cedric J. Robinson, *Black Marxism*, p. 296.

18 *Ibid.*, p. 341에서 재인용

19 *Ibid.*, p. 343에서 재인용

20 C. Eric LinColn, *The Black Experience in Religion*, 1974, p. 88.

21 Cedric J. Robinson, *Black Marxism*, p. 341에서 재인용.

22 Tom Wicker ed., *Report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 p. 221.

E. U. Essien-Udom, "Garvey and Garveyism", p. 351.

23 E. U. Essien-Udom, "Garvey and Garveyism", p. 360.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밀바다의 흑인들에게는 가아비의 구호가 ‘약속의 땅’을 보장해주는 희망이었다. 가아비는 흑인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러한 대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흑인운동이 종류계급이나 지식인을 중심으로 일어나면 백인과의 통합을 강조하게 되고 하층계급을 중심으로 일어나면 분리주의를 뒷받침한다는 것을 가아비의 운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20년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25개국으로부터 2만 5천여명이 참석한 국제회의가 31일간 비공개로 계속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자’가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되었고 ‘흑인권리선언’이 발표되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할렘은 연일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여기에서 당시 33세였던 가아비는 아프리카연합의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새로 구성된 최고집행위원회와 함께 임시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들은 모두 귀족의 작위를 받았고 영국기사도를 본 딴 예복과 망또를 받았다. 그리고 흑인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리베리아와의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흑인 기술자들이 리베리아에 정착지를 세우기 위하여 과전되기도 하였다. 또한 가아비는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에 일차대전중 독일이 식민지로 삼았던 아프리카 지역을 UNIA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반대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결국 이것은 가아비에게 화근이 되었다. 정부관리들도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가아비의 운동에는 대체로 1백만에서 6백만에 이르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UNIA는 그 산하에 900여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가아비가 기획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은 UNIA의 조직적 힘을 통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가아비가 활동하던 시대에 분리주의운동을 주장한다는 것은 60년대에 분리주의운동을 주장하는 것보다 도전적인 측면이 덜 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사회에서 흑인들이 점하고 있던 비중은 사실상 크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아비가 분리주의 운동이라는 폭발적 성격의 운동을 그 시대의 흐름을 의식하면서 혁명적 방법을 통해서 가 아니라 합법적 조직운동을 통하여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아비 운동의 특성을 약점으로서 지적하기도 하지만 자칫 백인들로부터 엄청난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당시의 정황에서 대중적 직접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평가된다. UNIA를 통하여 쌓여진 조직적 성과는 NAACP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가아비 운동은 흑인의 독자적인 힘으로 진행된 흑인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으며, 통합운동과는 달리 백인 자유주의자나 흑인 중산층의 도움 없이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아비의 운동은 상당한 조직적 성공과 함께 운동의 상징-가치의 형성이라는 면에서도 크게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가아비의 분리주의 운동이 상당한 정도의 領域性<sup>24</sup>을 확

<sup>24</sup> 領域은 조직인자, 운동, 상징-가치의 세 가지를 필요조건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직활동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동지향적인 民’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조직활동과

보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흑인운동의 보편적인 公共圈域<sup>25</sup>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힘까지 보여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아비는 조직활동을 통하여 領域性을 달성하고 나아가 그 領域性을 배경으로 정치적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던 도중 그 반대자들과 정치권에 의하여 좌절하고 말았다.<sup>26</sup> 그가 전개한 프로그램들에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는 사실도 가아비가 좌절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중기선 사업이 그의 기대처럼 잘 운영되지 않은 것이 가아비로서는 대단한 불운이었다.

우둠(E.U. Essien-Udom)은 가아비의 운동을 북부의 대도시에 있는 흑인 하층계급의 절망적인 사회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북부의 흑인들은 자신의 삶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사회는 그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거부하였다. 가아비와 같은 흑인 민족주의자들이 이러한 흑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이 유색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기에 흑인들은 가아비에게 열광적으로 반응하였던 것이다.<sup>27</sup>

차이가 있다. 이 점이 부문 중심의 여러 움직임(사회봉사활동, 이익집단활동 등)들과는 다른 것이다. 領域이라는 개념은 80년대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학생운동과 종교운동을 고찰하면서 이끌어낸 개념인데, 領域이 형성한 '변동지향적 民'은 60년대 미국사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권운동을 하기도 하며 80년대 한국사회의 학생운동같은 활동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국민발의, 친환경운동, 할렘 르네상스같은 문화적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한다. 그런데 한 사회에서 '변동지향적 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세력과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며, 이러한 점에서 領域은 關係性을 또 하나의 본질로 삼고 있는 것이다. 領域은 특히 이타적이고 정당성이 있는 운동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은 이 領域性 개념과 하버마스(Habermas)의 圈域性 개념의 적설성 여부,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신행,『한국사회의 정치변동과 영역-관계: 공동체의 정치변동론』(假題), 未發刊 참고.

25 하버마스(Habermas)는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르조아의 公共圈域에 주목하였다. 이 公共圈域은 자본주의적 방식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잡혀가고 부르조아 세력이 확장되어 가면서 살롱(salon), 테이블 소사이어티(table society), 교회, 언론, 각종 이익집단을 비롯하여 정당, 의회 등이 사회·정치적 삶의 모습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자리잡힌 것이다. 公共圈域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회를 조절하는 방식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共圈域은 국가권력이나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조절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하버마스는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公共圈域이 기초한 사회가 국가권력의 행정작용에 의하여 변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현대사회는 사회작용과 국가작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토론이 활성화될 수 없으므로 公共圈域에 대한 認知性(publicity)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결국 하버마스의 관심은 현대사회에서 公共圈域이 어떻게 재활성화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권과 사회권을 이슈로 활동하는 여러 사회집단이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상적인 營話구조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公共圈域의 재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raig Calhoun, "Introduction: Habermas and the the Public Sphere", Craig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1992 및 Ju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1989 참고.

26 가아비의 운동은 1923년 가아비가 우편물과 관련된 사기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NAACP와 쿨리지(Coolidge) 대통령에 의해 차마이카로 추방됨으로써 큰 타격을 입어 크게 약화되고 말았다.

이러한 가아비의 운동은 터너(Henry M. Turner)의 운동과 함께 분리주의와 생물학적 인종주의에 기초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형성된 흑인운동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였다.<sup>27</sup> 특히 가아비의 운동은 미국의 오랜 흑인민족주의의 한 전형이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가아비의 운동은 뉴욕의 할렘과 시카고 등지에서 미약하나마 그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에 있는 ‘아프리카 민족주의자 선구자 운동(African Nationalist Pioneer Movement)’은 일종의 新가아비 운동으로서 가아비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아비의 정신은 ‘흑인회교’와 말콤에게 가장 분명하게 계승되었다.<sup>28</sup> 특히 말콤이 지난 운동성은 분리주의철학으로 가아비의 상징성을 계승하고 여기에 가아비가 지니지 못했던 종교성을 수단과 그 목적으로 더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총체적인領域을 구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말콤은 이를 다시 아시아-아프리카적 보편성과 연결하면서 미국사회에 보다 폭 넓고 새로운 圈域을 형성하려 하였던 것이다.

### III. 말콤의 分離主義 – 이슬람 민족주의

민족주의적 흑인운동의 기원과 범주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論者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필자는 1800년대 아래 전개되어 온 분리주의운동과 식민주의 운동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878년 206명의 흑인이 아프리카의 리베리아로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 1915년에도 60여명의 흑인이 아프리카로 돌아갔으며, 언론과 정부 그리고 흑인단체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흑인이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휴스톤에 대기해 있기도 하였다.

남부농업지대에서 흥작이 거듭되고 KKK단이 발호하자 불평등한 흑백구조에 대한 흑인들의 환멸감은 더욱 커져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흑인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가아비의 운동이 흑인 하층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민족주의적 경향은 예술과 문학 방면에서 이른바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제3의 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흑인들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하워드(Howard)대학교의 한스베리(William Leo Hansberry)에 의한 아프리카 역사탐구와 같은 활동들이 이러한 경향을 자극하였다. 1930년대의 리베리아와 흑인왕국으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디오피아를 위한 모금운동 역시 이러한 민족주의적 흑인운동의 한 측면이었다.

흑인회교(Black Muslim)도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역사적 흐름이었다. 비교적 작은 종교집단이었던 흑인회교는 주로 네 가지 경로를 통하여 구성원을 충원하고 사회적 認知性(publicity)을 획득하였다. 우선 흑인회교의 공식조직과 흑인회교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27 E. U. Essien-Udom, “Garvey and Garveyism”, p. 352.

28 William J. Wilson, *POWER, RACISM, AND PRIVILEGE*, 1973, p. 200.

29 E. U. Essien-Udom, “Garvey and Garveyism”, pp. 365-366.

*Muhamad Speaks*라는 신문이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신문은 흑인계통의 신문으로서는 한 때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파드 무하마드(Fard Muhammad), 엘리자 무하마드(Elijah Muhammad), 말콤 엑스와 같은 저명한 인물의 활동을 통하여 충원작업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 등의 대도시에 설치한 경제활동기구들을 통해서도 회원이 충원되었으며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려 나갔다.

흑인회교의 기원은 193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흑인회교는 알라(Allah)를 섭기고 코란을 믿었으며 흑인과 백인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흑인들만의 높은 도덕수준을 확립하려 하였으며 백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기독교적 내용과 방법이 많이 채택되었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말콤은 흑인회교활동의 꽃이자 분리주의철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그의 삶의 굴곡과 역정, 예리하고 열화와 같은 얼굴, 破天慌적인 세계관의 변화, 청중을 사로잡는 강연과 매스컴 활동, 그리고 그의 극적인 죽음-이 모든 것이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 사고에 큰 충격을 던졌으며 따라서 말콤은 이후 흑인운동의 흐름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샘’이 된 것이다. 말콤이 전하고자 한 기본적인 메시지도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적 흑인운동의 한 표현이었다.

## 1. 말콤의 상징 – 이슬람 민족주의 신령

‘이슬람의 민족’(Nation of Islam)은 경제적 대답과 정치적 대답 모두를 가지고 있다. 말콤은 할렘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만약 종교가 사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자는 것이 필요하다면 종교를 삶과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 엘리자 무하마드는 우리가 깨어있고 단합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슬람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여기 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였다.<sup>30</sup>

1950년대 흑인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남부 도시의 경우 95퍼센트 이상의 흑인이 비숙련노동에 종사하였으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청소부, 요리사, 기계수리공 등 일상적인 일이었다. 백인들 중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25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흑인들이 처했던 경제상황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sup>31</sup>

흑인회교의 목사로서 말콤은 민권운동과 흑인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대안과 도전으로서 이슬람의 민족을 제시하였다. 그는 통합을 주장하는 민권운동이 흑인의 정치적 필요

30 James H. Cone, *MARTIN & MALCOM & AMERICA*, pp. 173-178.

31 흑인여성의 50퍼센트가 가정부로 일했던 반면 백인여성들 중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은 1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Aldon D. Morris, *The Origin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1984, p. 1.

성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하늘 위에 있는 천당만을 설교하는 흑인기독교 역시 흑인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달리 이슬람의 민족은 흑인의 정치적·종교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슬람의 민족이 가르치는 엄격한 도덕성, 백인과의 분리, ‘지상천국’의 신학이야말로 흑인들이 겪어 온 정신적·사회적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었다.

이슬람은 우리를 서로 알게하고 서로 사랑하게 한다. 자기에 대한 지식과 自己愛야말로 우리를 하나의 민족으로서 묶어주는 것이며 이러한 연대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을 성취할 수 있다.<sup>32</sup>

이슬람은 흑인민족주의이며 흑인을 해방시키고 흑인을 단합시키는 것이다.<sup>33</sup>

말콤의 상징과 운동을 기계론적으로 구분할 경우, 그것은 크게 다른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말콤이 12년간 흑인회교의 목사로서 활동하면서 보여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메카순례 이후 흑인회교와 결별하기까지 2년간의 활동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그러나 말콤의 사회운동적 의미는 무엇보다 흑인목사로서 그가 지녀왔던 역사적인 모습, 즉 ‘이슬람의 민족’과 ‘분리주의’에 두어야 한다. ‘이슬람의 민족’과 ‘분리주의’는 그가 활동한 기간의 대부분을 역정지웠기 때문이다.

종교는 삶의 전 존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치를 제외하고 삶의 다면성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이 종교이다. 이슬람의 민족 역시 종교이자 운동이고 생활이며, 또 그것은 경제이자 사회이고 문화이다. 말콤에게는 이슬람의 민족이 흑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염원을 표현하는 대표값이면서 동시에 흑인의 얼굴이고 몸이었다. 이슬람의 민족은 보통 종교가 아니라, 백인이 누구이며 따라서 흑인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 마치 神처럼 그들 위에 군림하여 그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존재지었던 敵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알라신이 본원적 죄를 짓고 있는 敌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이것이 말콤의 이슬람의 민족이다.

이슬람의 민족이 기본적으로는 파드 무하마드에서 엘리자 무하마드로 이어지는 종교적 신념의 상징어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단지 종교적 기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흑인들이 처한 경제적·정치적·심리적 문제까지도 폭넓게 안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말콤의 상징-가치는 이슬람의 민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흑인-민족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흑인문제를 바라보는 말콤의 세계관이기도 하였다. 말콤은 백인이나 흑인 중산층의 기독교가 백인과 흑인 중산층에게 준 의미보다 훨씬 절실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이슬람의 민족에서 찾았다. 말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흑인회교는 흑인의 개인적·사회적 전 존재가 알라신의 은총

<sup>32</sup> Ibid., pp. 173-180.

<sup>33</sup> Archie Epps ed., *The Speech of Malcom X at Harvard*, 1968, p. 116.

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말콤의 맷세지는 흑인회교에 속하지 않는 흑인들에게도 그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더우기 말콤은 백인과 백인사회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없이 명쾌하게 설�판했기 때문에 많은 흑인들은 이슬람의 민족으로 그들 자신이 변화하고 하나가 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흑인들의 의식과 움직임 뒤에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회교도와 모든 유색인종간에는 연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신들이 정작 속해야 하는 공동체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이슬람의 민족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말콤이 의도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슬람의 민족은 흑인의 '존엄과 평등'을 이루는 흑인의 '뜻'이고 보편적인 흑인들의 '형제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 땅의 정의와 평등을 위한 회망'이다. 그리고 그것이 특히 기독교와 다른 것은 백인에 대한 흑인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민족은 흑인민족주의라는 표현보다 더욱 뚜렷한 구체성과 현실성을 갖는다. 흑인민족주의가 흑인운동의 분리주의적 성격과 정치적 의미를 접맥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흑인사회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虛像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데 비하여, 이슬람의 민족은 흑인이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과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포괄적인 상징의 힘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슬람의 민족 역시 하나의 종교적 문파로서 갖는 성격과 한계를 지닌다. 바로 이러한 한계가 후에 말콤이 이슬람의 민족으로부터 흑인민족주의로 전환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 말콤이 변신한 것은 죽기 2년 전이었으므로, 그가 추구해 온 공동체성과 자기정체성은 결국 이슬람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콤이 자신이 속할 공동체를 찾은 것도 엘리자 무하마드와 만난 이후의 일이다. 성경의 바울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변화를 경험한 말콤은 흑인회교의 목사로서 흑인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이 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흑인회교가 미국의 흑인을 위해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포착하였다.

말콤이 엘리자 무하마드를 만난 이후 갖게 된 새로운 생각과 삶의 자세는 미국의 모든 흑인에게도 같은 의미를 주었다. 그 때까지 흑인들은 말콤이 지적한 것처럼 자기비하와 상호멸시 속에서 집단적으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왔다. 이슬람의 민족은 두 가지의 큰 줄기로 종합될 수 있다. 첫째는 아프리카로의 회귀이다. 아프리카의 피, 그들의 기원으로서의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문화, 아프리카와의 연대 등 미국사회 흑인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미국적 요소보다 아프리카적 요소가 더 많다는 사실을 말콤은 강조하였다.<sup>34</sup> 그리하여 그는 흑인의 母國 아프리카와 아프로-아메리칸 사이에 의미있는 연결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말콤은 이러한 연결을 통하여 흑인의 완전한 자기정체성이 획득되리라고 믿었다.

둘째는 흑인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가장 중심되는 과제는 백인과 미국사회

34 존 헨리 클라크, 김영일 역, 「말콤 엑스와 검은 혁명」, 1982, p. 126.

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분명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백인은 악마이다”라는 언명은 악마인 백인이 만들어낸 흑인의 운명에 대응하는 존재로서 흑인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말콤은 이렇게 말하였다.

엘리자 무하마드의 가르침이 감옥 속에서도 그처럼 빨리 흑인죄수들 사이에 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백인은 악마이다”라는 말은 죄수가 된 그들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메아리인 것이다.<sup>35</sup>

말콤은 그가 백인을 악마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이 ‘역사적 권위’에 의거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자기 말의 설득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바로 흑인에 대한 백인의 범죄가 세계사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지적하였다.<sup>36</sup> 따라서 ‘백인 미국’은 멸망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말콤의 결론이다.

흑인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종주의적 상황에 대한 ‘자기지식’을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주체적 인격으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백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흑인동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sup>37</sup> 이것이 자기멸시가 사라지고 自己愛와 흑인간의 연대가 강화된 모습이다. 이 때부터 흑인은 백인과의 종속적 관계를 깨뜨려 가기 시작한다. 즉 흑인이 스스로 백인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깨뜨리지 않는 한 불평등과 억압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미국사회 의 현실이며, 오직 이를 통해서만 흑인의 자기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이다.<sup>38</sup>

“백인은 악마이다”, “백인 미국은 멸망한다”라는 언명은 단순히 흑인을 아프리카에서 납치하여 노예로 만든 후 흑인의 인간성을 짓밟은 백인의 행동에 대한 규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黑人性을 강렬하게 부각시킨 의미를 갖는다. 마약밀매자로서, 그리고 흑인 개단의 일원으로서 밀바닥 인생을 살아온 말콤을 놀랍게 변화시켰던 이 말은 말콤을 통하여 한층 강렬하게 중폭됨으로써 흑인사회를 온통 뒤흔들었다. 그것은 흑인에게 개인적 자기정체성과 집단적 공동체성을 불어 넣는 작업이었다. 말콤이 자유(freedom), 연대(unity), 사랑(love), 지식(knowledge)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작업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 2. 自由로서의 分離

말콤에게 分離는 신의 명령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이념적인 과제가 된다. 신이 요구하는 것이 分離이므로 통합을 바라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다. 신의 뜻을 따르고 흑인들이 자신을 존

35 알렉스 헤일리 기록, 金鍾澈, 李宗郁, 鄭淵珠 譯, 『말콤 엑스 (上)』, 1978, p. 299.

36 Benjamin Goodman ed., *Malcom X The End of White World Supremacy*, 1971, p. 70.

37 알렉스 헤일리 기록, 金鍾澈, 李宗郁, 鄭淵珠 譯, 『말콤 엑스 (上)』, pp. 297-298.

38 존 헨리 클라크, 김영일 역, 『말콤 엑스와 검은 혁명』, p. 62.

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푸른 눈의 백인’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말콤이 볼 때 킹의 주장과 같은 흑백통합운동은 흑인의 진정한 평등과 해방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었다. 어떤 백인이라도 이전에 자기가 노예로 부렸던 흑인을 마음속 깊이 등등하게 대우해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백인이 흑인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말콤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실질적으로 평등과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 될 수 없고 형식적인 표적을 남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흑백통합운동이 위선적으로 곁에만 회칠을 하면서 일부 흑인 괴뢰들로 하여금 선전을 하도록 하여 그들에게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일 뿐이므로 대부분의 흑인들은 여전히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지적이다.<sup>39</sup> 따라서 말콤이 제시한 최선의 해결책은 완전한 흑백분리였다. 백인과의 통합은 흑인간의 분열을 가져올 뿐이고 영구적인 정신적 노예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떤 흑인이든지 그가 통합을 원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의 열등함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왜냐하면 그가 이른바 보다 ‘우월한’ 사회에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40</sup>

말콤은 하버드대학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sup>41</sup>

우리가 백인사회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흑인은 백인이 교육을 통해서 인종적 편견과 백인우월주의에서 벗어날 때를 기다릴 수 없다.

말콤은 계속하여 흑인이 명실상부하게 해방될 수 있는 길로서 分離를 力說하였다.

이같이 구속되어 있는 흑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패한 사회 내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고 우리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건설하는 것입니다.<sup>42</sup>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욱 분명하게 ‘격리’를 거부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격리’가 아니고 ‘분리’이다. ‘격리’와 ‘분리’는 분명히 다르다. 엘리자 무하마드 선생은 우리에게 ‘격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 생명과 자유가 제한되고 규제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격리하는 것은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는 평등한 양자간에 상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엘리자 무하마드 선생은, 우리가 백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백인에게 일과 의식주를 구

39 James H. Cone, *MARTIN & MALCOM & AMERICA*, p. 110.

40 *Ibid.*, p. 110에서 재인용

41 Malcolm X, “The Harvard Law School Forum of March 24, 1961,” Archie Epps ed., *The Speech of Malcolm X at Harvard*, p. 123.

42 알렉스 헤일리 기록, 金鍾澈, 李宗郁, 鄭淵珠 譯, 「말콤 엑스 (下)」, 1978, p. 58.

결해야 할 것이며 백인은 항상 우리의 생활을 규제할 것이기 때문에 백인이 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격리'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가르쳤다.

말콤의 분리주의는 일종의 흑인우월주의였다. 이제 흑인들은 서로 힘을 합쳐 백인들이 했던 것처럼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내야 한다. 공장을 세우고 주택을 세워 자립을 해야 하는 것이다. 즉 미국사회에서 인종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백인 상전'들로부터 2천 2백만에 달하는 '노예'들이 모두 분리되어 나와 그들만이 모여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들 자신의 토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sup>43</sup>

우리는 이곳 미국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도록 자유로웠던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토록 들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을 스스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도 하고 상업도 하고 그 밖의 여러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명화된 국민들처럼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뇌되어 왜곡된 자기 학대와 자기모멸을 모두 버리고 함께 모여 살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땅을! .....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을! ..... "<sup>44</sup>

그렇다면 흑인공동체는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인가? 분리의 완성단계인 흑인공동체의 전설은 이슬람의 민족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다. 흑인공동체의 건설은 미국사회에서 흑인이 완전한 해방을 얻었음을 의미하며 말콤이 주장해온 분리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아프로-아메리칸'의 비타협적이고 정의로운 폭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sup>45</sup>

말콤은 서로 같은 인종간의 연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종적으로 혼합된 상황에서 결코 연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그의 눈에는 흑인이야말로 연대성이 없는 유일한 인종으로 보였다.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흑인간에 연대가 없기 때문이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흑인은 계속해서 백인에게 억압당해온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43 존 헨리 클라크, 김영일 역, 『말콤 엑스와 검은 혁명』, p. 438.

44 이 부분은 엘리자 무하마드의 연설내용을 말콤이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이 흑인분리운동과 흑인의 공동체형성에 미친 영향은 바로 말콤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말콤은 항상 그의 연설 서두를 자신은 엘리자 무하마드를 대신해서 연설한다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메세지를 엘리자 무하마드의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알렉스 해일리 기록, 金鍾澈, 李宗都, 鄭淵珠譯, 『말콤 엑스 (下)』, p. 74.

45 Ibid., pp. 248-249.

### 3. 흑인의 자기정체성

말콤이 연대, 自己愛, 자기방어를 강조한 것은 흑인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노력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연대는 흑인이 자유를 얻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요한 것인데, 이는 흑인이 자기증오가 아닌 自己愛를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말콤은 흑인이 자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自己愛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46</sup> 이제까지 흑인은 문화적으로 죽은 존재이고 상호관계에서도 소외된 존재였다. 따라서 흑인은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상호연대를 형성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콤이 보기에 흑인이 자기정체성을 갖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말콤이 감옥 속에서 엘리자 무하마드가 손을 내밀자 전광석화처럼 흑인회교에 귀의한 것은 아마도 그가 자기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오래 전부터 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47</sup>

우리는 자기를 잊은 민족이다. 이름도 언어도 고향도 신도 종교도 모른다. 자칭 미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노예시절 노예소유주로부터 던져진 노예이름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 우리는 계곡에 딩굴고 있는 마른 뼈다귀들이고 무지의 무덤에 있는 정신적 시체들이다.<sup>48</sup>

말콤은 흑인이 백인을 미워하기 주저하고 오히려 친구로 삼으려 하는 것을 세뇌당한 결과로 생각하였다. 오직 세뇌당한 사람만이 자신을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백인이 흑인을 철저히 세뇌시켰기 때문에 흑인이 백인을 닮으려 한다는 것이다.<sup>49</sup> 흑인끼리 사랑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한 말콤의 입장에서, 흑인이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지 않는 것은 자기 종족에 대한 배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인 백인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 이었다.

말콤의 정의관은 킹의 정의관과 달리 '자기방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말콤은 '눈에는 눈으로'라는 식으로 적대자를 대하였다. 말콤의 자기방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다. 이는 흑인간의 연대를 이루어 인종차별이 초래한 흑인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흑인공동체를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46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 105.

47 흑인의 자기정체성을 찾으려는 말콤의 노력은 그가 죽은 후 그의 전기를 쓴 알렉스 헤일리가 『뿌리』를 쓰는 데 커다란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알렉스 헤일리는 1963년 한 해 동안 말콤을 만나면서 말콤의 자서전을 준비하였으며 이 자서전은 그 이듬해인 1964년에 출간되었다. 그러나 말콤은 그의 자서전을 읽어 보지도 못하고 암살되었다. 알렉스 헤일리가 『뿌리』를 쓰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의 일이다.

48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 105에서 재인용

49 *Ibid.*, p. 105.

나는 흑인들에게 어떠한 방법이라도 써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투쟁할 권리가 있다고 확고하게 믿는다. 만일 비폭력이 단지 폭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흑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면, 나는 폭력을 지지한다. 비폭력이 문제해결의 지연을 뜻한다면 나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문제해결을 지연하는 것은 결코 해결이 아니다. 아니, 다른식으로 말해보겠다. 이 나라에서 흑인이 자기의 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 그와 똑같은 이유로 나는 폭력을 지지한다. 내 입장은 그런 경우에 처한 그들의 입장과 같은 것이며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폭력에 의해서 누가 다치든지 간에 나는 폭력을 지지할 것이다.<sup>50</sup>

말콤이 흑인의 연대, 자기사상, 자기지식 그리고 자유를 자기 맷세지의 핵심으로 생각했기에 그가 구상한 공동체는 이러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엮어진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말콤의 정력적인 활동은 실제로 여러 부문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우선 무엇보다 흑인 스스로가 자기정체성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기 시작했다. 말콤은 일체감을 갖지 못한 채 미국사회의 제일 밑바닥을 채우고 있던 흑인이 자신의 상징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자산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흑인은 이제 미국사회에서 백인에게 억압당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인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흑인의 자기지식이 상대적으로 백인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흑인의 힘(black power)’이며 말콤死後 흑인신학에 대한 관심도 널리 번져나갔다. 이에 대하여 백인들은 말콤을 매도하고 흑인 내부에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다.

#### 4. 말콤과 흑인운동

1964년 엘리자 무하마드와 결별한 뒤 말콤은 보다 광범위하고 현세적인 지향성을 갖는 집단으로서 ‘아프리카 미국인 단결기구(OAAU)’라는 새로운 조직체를 설립하였다. 이는 그 성향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흑인들을 모두 흑인운동의 대열로 모으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와서 말콤의 흑인민족주의는 엘리자 무하마드의 흑인회교운동에 가담한 당시와는 또다른 변화를 보인다. 흑인회교운동을 통하여 나타났던 말콤의 모습은 다분히 배타적인 것이었다.<sup>51</sup>

이제 말콤은 이전과는 달리 국제적 연대를 통해 미국 흑인의 문제를 민권의 차원을 넘어서 인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 하였다. 그리고 이슬람 형제애 안에서 백인들을 포용하면 그들 역시 흑인운동의 지원세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말콤은 이와 같은 노선수정을 통하여 국제적인 종교적·인종적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의 인종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미국

50 알렉스 해일리 기록, 金鍾澈, 李宗郁, 鄭淵珠 譯, 「말콤 엑스 (下)」, p. 249.

51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 104.

흑인들과 아프리카 국가들 및 희교국들 사이에 의미있는 유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말콤의 변화가 그의 생애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가 저격당하기 2년 전이었으므로 그것이 구체적인 운동으로 표현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슬람의 민족’이라는 상징 하에 말콤이 미국사회에 던진 명제가 워낙 강렬한 것이었기에 그의 생애 중에 그러한 변화를 반영할 공백을 찾기는 더욱 어려웠다.<sup>52</sup>

말콤은 흑인운동이 민권운동과는 달리 당위적으로 흑인의 새로운 인간상을 구축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견해를 미국사회에 제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적 직접 행동을 벌이지 않았고 그의 종교적 활동도 흑인회교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었지만, 수많은 강연과 텔레비전 및 라디오 토론을 통하여 전달된 그의 메세지는 흑인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체와 나아가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말콤은 근본주의적 성향과 종교적·관념적인 면에서 스스로에게 가한 제한 때문에 여타의 흑인단체나 중산층 흑인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sup>53</sup> 그의 주장은 미국의 중산층과 지도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백인에게는 이슬람의 민족에 기초한 말콤의 분리주의적 주장이 폭발적인 인종주의로 번져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자위적 폭력에 대한 말콤의 견해는 백인뿐 아니라 흑인 중산층에게도 인종간의 전면적 폭력대결을 자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당시는 킹의 ‘온건한’ 민권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가는 상황이었다.

비록 흑인회교가 말콤의 정력적 노력과 엘리자 무하마드의 종교적 능력에 힘입어 상당한 영역을 형성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말콤의 메세지와 활동은 킹이 전개한 운동처럼 公共圈域을 형성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말콤의 운동은 미국사회에 흐르고 있는 기본신조나 기독교정신이 만들어내는 이해의 공간과 일치되지 못했기에 킹의 민권운동과는 달리 전사회적인 움직임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미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하나의 이방적 종교분파에 불과했던 흑인회교는 흑인 다수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지나치게 엄격한 이슬람의 도덕율은 말콤이 많은 흑인대중과 결합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sup>54</sup>

그러나 와츠에서 시작된 ‘길고 무더운 여름’<sup>55</sup>은 더이상 킹과 NAACP에 의해 주도되

52 말콤의 변화가 실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나타난 예는 없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의 흑인 운동과 소수민족운동에 대하여 그의 변화가 미친 영향은 큰 것이었다. 이는 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3 1963년 당시 말콤은 미국대학에서 두번째로 인기있는 초청강사였다고 한다. 그 첫번째는 골드워터 (Barry Goldwater) 상원의원이었다.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 112.

54 *Ibid.*, p. 105.

55 당시 한 신문사에서 실시한 ‘어느 지도자가 가장 흑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가’ 하는 여론조사에서 킹은 3/4의 지지를 얻었으며 말콤은 겨우 6%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알렉스 헤일리 기록, 金鍾澈, 李宗郁, 鄭淵珠譯, 「말콤 익스 (下)」, p. 324.

56 1965년 와츠에서 시작된 흑인폭동은 북부와 중서부를 거쳐 여러 도시들에서 계속되었다. 폭동에 참

는 통합운동이 흑인문제의 온전한 해답일 수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비폭력저항과 인종적 통합보다는 말콤이 주장한 것과 같은 폭력을 통한 분리가 흑인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새롭게 생겨났다.

분리를 통해서 흑인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말콤의 주장이 미국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다.<sup>57</sup> 미국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던 인종문제에 대한 말콤의 지적은 일부 흑인들에게 더없이 명쾌한 것이었다. 더우기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은 말콤의 '말(language)'로써 던져졌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선명한 쟁점과 과제로서 미국사회에 부여되었다.

말콤은 미국 흑인의 문제를 '아프로-아메리칸'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흑인민족주의의 실현으로서 흑인공동체의 완성을 주장하였다. 말콤이 구축한 토론상황이 엘리자 무하마드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권력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자 하지 않는 동시에 흑인의 실존과 사회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민권운동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말콤은 미국사회에서 흑인이 처한 상황을 정신적 노예상태의 지속으로 파악하고 법적 차원에서 타협을 지향한 민권운동을 흑인에 대한 배신으로 비난했으며 백인과의 어떠한 통합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흑인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연장된 결과였다. 운동의 확산보다 운동의 진정한 출발점을 올바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말콤의 맷세지이다. 흑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온 그의 '말'은<sup>58</sup> 앞으로 미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흑인들이 지녀온 분리지향적인 사회적 욕구를 표현한 정신적 샘으로서 흑인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 IV. 킹의 統合主義 – 흑인민권운동

흑인혁명이라고 하든 흑인운동이라고 하든, 흑인민권운동의 뿌리는 1950년대 중반 남부(deep south)에서 350년간 참담한 곤경에 처해있던 흑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사회운동이다. 킹의 민권운동 역시 흑인의 어두웠던 전통에서 비롯한 사회적·정치적·종교적 움직임이었다. 봉고메리에서의 승차거부운동으로부터 시작한 킹의 민권운동은 이를 바 '비폭력의 시대'라고 하는 1955년부터 10년간 흑인운동의 주역이라는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1960년의 '연좌운동(the sit-in crusade)'과 1961년의 '자유승차여행(freedom ride)'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남부 기독자 지도력 협의회(Southern

여한 흑인들은 "불태워라"라는 구호와 함께 "영원한 말콤 액스"를 외쳤다.

<sup>57</sup> James H.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 100.

<sup>58</sup> 말콤의 '말'은 분명했고 솔직하였다. 그리고 그는 역사의식에 기초하여 통렬하게 주장, 설득하고 상대방을 공격하였다. 뉴욕시에서 발간되는 *Amsterdam News*의 한 기자는 그의 토론기술을 '거대한 살인자'의 그것이라고 했다.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p. 99, 102. 그리하여 실제로 많은 논객들은 그와의 토론을 기피하였는데 킹도 그러했던 것 같다.

Christian Leadership Council)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領域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모체로 하여 1962년 남부에서 투표권 없는 수백만의 흑인을 위한 참정권운동의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민권운동은 하나의 公共圈域을 형성하게 되었다.

1962년부터 1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이 운동에 참여한 흑인 대학생들은 남부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이들은 남부의 오랜 전통이었던 강고한 인종주의에 도전하면서 공공시설의 반분리정책(desegregation)을 실현시켰다. 마침내 1964년에 연방정부가 민권법안(Civil Rights Act of 1964)을 제정함으로써 민권운동은 제도차원에서의 변동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킹의 민권운동이 이룩한 정치적 승리이다. 투표자에 대한 교육과 투표자등록운동이 전개된 결과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이 제정되었다. 남부에서 흑인의 투표는 결정적인 정치적 힘이 되어 남부재통합기(Reconstruction) 이후 수백명의 흑인을 선출직에 진출시킨 바탕이 되었고 이른바 선동가정치를 종식시킨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100년 이상 경과한 헌법 수정 제15조(the Fifteenth Amendment)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킹과 흑인민권운동이 구사하는 가치-상징과 운동의 흐름이 미국 기독교의 기본신조와 일치함으로써 그들이 형성한 公共圈域이 미국사회 전체에 흐르는 보다 더 큰 公共圈域에 편입하여 운동세를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1. 킹의 설득력과 민권운동

킹에 대한 전통적 연구자들은 킹의 ‘통합주의’가 크로즈신학교와 보스頓대학교에서 받은 교육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킹의 사상적 형성과정은 그의 논문인 “비폭력에의 순례(Pilgrimage to Nonviolence)”에 잘 나타나 있다.<sup>59</sup> 여기에 더하여 전통적 연구가들은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의 사회복음, 공산주의, 간디의 비폭력, 니버(Reinhold Niebuhr)의 신정통주의, 그리고 사랑 등을 주요 테마로 하여 킹의 사상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헤겔의 변증법, 인격주의(personalism)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민권운동에 나타난 킹의 사상은 서양사상의 주된 흐름 속에서 간디의 이념을 종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밀러(Keith D. Miller)는 킹의 ‘통합주의’가 제도교육기관에서 받은 신학적 훈련보다는 미국 흑인교회가 지니고 있던 통합론적 흐름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밀러는 킹의 공식저서보다 그의 연설이나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검증하였으며 킹이 통합주의적인 백인 목사들의 설교집에 많이 의존하여 그의 연설과 설교를 작성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예컨데 킹이 죽기 2개월 전인 1968년 2월 올번(Alburn) 에비뉴 교회에서의 “Drum Major Instinct”라는 제목으로 한 유명

<sup>59</sup> King, *Stride Toward Freedom*, 1958, pp. 90-107.

한 강연은 해밀顿(Hamilton)의 설교에서 거의 옮겨온 것인데, 이는 표절이냐 아니냐를 떠나 킹이 통합주의적 흐름에서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sup>60</sup> 밀러는 킹이 포스딕(Fosdick), 해밀顿, 보슬리(Bosley) 등의 백인 설교가들로부터 그들의 정서와 운율, 語句, 관용어, 표현 등을 따옴으로써 자신의 메세지를 백인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말콤이 흑인을 자신의 ‘말’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킹은 백인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킹은 이전까지의 흑인지도자들과 달리 백인통합론자의 사고방식과 문제의식, 그리고 그들의 표현방법을 구사함으로써 백인에게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다.<sup>61</sup>

밀러는 또한 많은 킹 연구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킹 사상의 씨앗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흑인의 전통을 간파함으로써 흑인 민족기독교의 메세지가 60년대 미국사회에서 인종적 정의를 실천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밀러는 킹의 많은 설교와 연설이 저명한 목사였던 그의 외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에게,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흑인 민족기독교 설교가들의 설교집에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킹은 흑인의 문제의식을 백인의 인식체계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그가 구사한 語句나 語法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자 한 메세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으며 그가 어떠한 전통을 계승하여 그러한 메세지를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킹의 어린시절은 남부 흑인교회와 NAACP 등의 활동에 정력적이었던 그의 집안 분위기에 의해 규정되었다. 따라서 킹은 어린시절부터 흑인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배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흑인의 삶 속에 이어져온 민족설교의 메세지를 백인의 표현으로 담아낼 수 있었으며 ‘비폭력’, ‘공포’, ‘자유’, ‘평등’, ‘차별철폐’ 등을 주제로 한 자신의 메세지를 백인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sup>62</sup> 그러므로 킹은 남부 흑인들이 지녔던 종교적 열정을 사회행동으로 전환시킨 동시에 그의 종교적 소명감으로 여파된 정치적 지도력을 흑인들에게 제시했던 것이다.<sup>63</sup>

이렇게 흑인전통이 킹의 지적·정신적 보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파하게 된 것은 많은 학자들이 킹이 백인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 접했던 플라톤, 스피노자, 칸트, 로크, 니이체, 헤겔, 막스 등 유럽의 철학자들과 라우센부쉬, 니버, 틸리히(Paul Tillich) 등 만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킹 역시 자신의 연설문이나 설교문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던 까닭에 그에 대한 이해의 혼선을 초래하였다. 킹은 자신의 논문이나 수상, 평론이나 저서의 내용을 해밀턴이나 보슬리 등 다른 설교가들로부터 빌려왔다는 사실을 분

60 1949년 플로리다의 해밀턴(J. Wallace Hamilton)목사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해밀턴의 설교집인 *Ride the Wild Horses!*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Keith D. Miller, *Voice of Deliverance: The Language of Martin Luther King Jr. and Its Sources*, 1993, pp. 3, 216.

61 *Ibid.*, p. 5.

62 *Ibid.*, pp. 11, 200.

63 C. Eric Lincoln, *Race Religion and Continuing America Dilemma*, 1984, p. 247.

명히 밝히지 않고 활동하였다.<sup>64</sup>

결국 밀러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킹의 연설과 설득력이 흑인의 전통과 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흘러내려온 민속설교의 메시지를 통합주의적 백인 목사들의 설교문을 빌어 전달한 결과라는 것이다.<sup>65</sup> 당시 파머(James Farmer), 윌킨스(Wilkins), 루이스(John Lewis), 내쉬(Diane Nash), 바커(Ella Baker), 러스틴(Bayard Rustin), 에버스(Medgar Evers), 메레디스(James Meredith) 등 수많은 흑인지도자와 NAACP, CORE, SNCC 등 흑인운동단체 중에서 킹이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흑인의 전통적 메세지를 바탕으로 하여 백인사회에 통합주의적 표현을 살린 킹의 연설(말) 때문이었다. 킹의 ‘말(language)’에 모든 미디어가 주목하였다.<sup>66</sup> 바로 이 때문에 킹은 지금까지 어떤 흑인지도자나 흑인운동단체도 가질 수 없었던 강한 설득력을 백인과 미국사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킹 앞에서는 다른 흑인지도자들이 자연히 주목의 장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직 킹만이 당시의 혁명적 상황을 어지럽게 보도하는 언론매체에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다. 백인사회와 언론매체 역시 흑인들이 킹을 지도자로 인정하게끔 하였다. 자유주의적인 북부의 프로테스탄트가 킹의 민권운동을 돋기 위해 그들의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킹의 연설 때문이었다.

## 2. 킹의 상징-가치

“Pilgrimage”에 따르면 킹이 보스톤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인격주의(Personalism)를 공부하기 위함이었다. 지금은 비록 인격주의적 전통이 정통 신학계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人性을 가진 존재로 바라봄으로써 킹은 흑인의 고통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흑인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좌절 위에 형성된 ‘노예종교’인 흑인기독교의 종교적 주제와 신학적 관심이 킹의 사상 속에서 일치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7</sup>

킹은 인격주의가 ‘모든 사람의 위엄과 가치의 기초’라고 말한다.<sup>68</sup> 인격은 반인격적 힘의 무차별 실록에 저항할 수 없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자유롭다고 말하더라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열린 사회에서 자유로운 상호관계를 가질 수 없을 때에는 자유와 평등이 존재할 수 없다. 차별은 개인행위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반인격주이다. 민권운동에 나선 킹의 대의가 바로 이것이었다.

64 밀러(Miller)는 그의 책에서 폭넓게 킹 연설의 원전을 찾아내어 그의 주요 연설 가운데 20개의 출처를 밝혔다. 그리하여 킹의 학위논문은 표절시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Keith D. Miller, *Voice of Deliverance: The Language of Martin Luther King Jr. and Its Sources*, pp. 61-62.

65 *Ibid.*, pp. 11, 200.

66 *Ibid.*, pp. 10-11.

67 King, *Stride Toward Freedom*, p. 100.

68 *Ibid.*, p. 106.

킹이 인종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여러가지 개념과 동기가 인격주의와 서로 얹혀서 나타난다. 법의 한계, 자유와 평등의 문제, 집단행동의 역동성, 우월감, 공포, 불안전이 혼재하는 정치적·사회적 삶의 메카니즘, 문제의 보다 깊은 차원을 위하여 환상을 제거할 필요성, 도덕적 방향의 재설정과 복음의 은총 등 많은 문제점이 서로 얹혀 있다. 이에 따라 킹은 인간으로서 자아실현이 거부되고 손상된 흑인의 삶을 민권운동의 목표로 삼았다.

킹이 제시한 인격주의는 흑인들이 오랜 인고와 곤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에서 찾아진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흑인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미국 흑인교회가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멧세지인 동시에 킹의 주제였다. 미국사회에 내재해 있는 유대교-기독교적 전통이 미국의 에토스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흑인이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그러한 이해 위에서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 미국인은 이에 대해 도덕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킹은 이 주제를 미국의 信條와 연결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미국 사회의 공공권역을 움직였던 것이다.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킹은 자신의 목소리에 더하여 바로 미국사회가 지녀온 신조와 ‘워싱턴의 행진’에 나타난 주제를 그의 연설에 덧붙였다. 그는 워싱턴에서 제페슨, 링컨,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이 손을 잡고 취임선서를 하는 성서의 권위를 빌어 “흑인에 대한 차별은 제페슨의 비전을 치욕스럽게 하고 링컨의 노예 해방선언의 정신과 그 본질을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아모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와 이사야의 바램을 범한 것이며 결국은 미국의 자유를 더럽혔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sup>69</sup> 킹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信條와 염치구조에 흑인의 문제를 결부 시켰던 것이다. 미국인은 “평등과 자유의 미국적 신조”를 주장한다.

킹에 의하면 자유는 자유의지와 연결된다. 행위에 책임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정당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유로운’ 행위주체가 되지 않을 때 그를 정당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 킹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유가 없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어디에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에 제한을 받는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속성을 도둑맞게 된다.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체계가 이미 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때 나는 동물로 전락해 버린다. 그 때 나에게 인간과 깊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결정에 대한 운동기관적 반응과 기능뿐이다. 내 자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결정의 회생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인격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맡을 수 없다.<sup>70</sup>

<sup>69</sup> Keith D. Miller, *Voice of Deliverance: The Language of Martin Luther King Jr. and Its Sources*, p. 149.

<sup>70</sup> Martin Luther King, Jr., *Where Do We Go from Here: Chaos or Community?*, 1967, p. 99.

그러나 미국사회에서 백인은 한번도 유색인에 대하여 ‘평등과 자유’의 강령을 시행한 적이 없다. 군나르 미르달이 말한 ‘미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신조’와 ‘행위’와의 명백한 괴리를 넘어서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왈도 비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만약 문제가 누구나 알고 있는 공언된 평등과 실행되고 있는 불평등의 괴리에 있다면 도덕적 양심의 성장만으로도 그 벌어진 간격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더 알수록 행위는 더욱 악화된다는 심화되는 모순은 그렇게 쉽게 메울 수 없다. 이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생산되는 거짓 신앙인 것이다. ‘갈등적 가치화’는 인간정신 안에서 벌어지는 신들의 전쟁이다. 인종문제는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문제이며 문화지체가 아니라 상충하는 신앙의 문제이다.<sup>71</sup>

킹의 민권운동이 領域을 넘어서 公共圈域의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흑인과 백인간의 ‘명백한 괴리’와 ‘상충’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운동의 에너지로 삼아 미국사회 의 인종적 구조와 그 구조를 둘러싸고 제도화된 감성을 훈들었기 때문이다. 킹은 인종 차별적인 미국사회의 구조와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용인하는 백인의 감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므로 이것을 타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백인의 표현을 가지고 백인의 신조와 양식에 호소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우상이 문제이다. 미국사회에서는 집단적인 우상숭배가 행하여지고 있다.<sup>72</sup>

인종주의는 삶에 대한 경멸에 기초한다. 인종주의는 한 인종이 가치중심이며 숭배대상이므로 다른 인종은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 한다는 교만한 주장이다. 한 인종이 미래의 모든 진보를 책임진다는 도그마는 허황된 것이다. 인종주의는 완전한 일탈이다. 몸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해체시킨다. 인종주의는 필연적으로 자기 집단 밖의 사람들을 영적·신체적으로 살륙하는 타락을 맛보게 된다.<sup>73</sup>

이 문제의 저변에는 자신, 인종 또는 문화를 신으로 만들려는 의식적·무의식적 동기가 숨겨진 우상이 있다. 킹은 인간의 마음속 내밀한 곳까지 바라보는 神의 판단 아래에서만 인종적 자만의 뿌리가 바르게 이해된다고 외쳤다. 따라서 인종편견은 인식에 의해 서가 아니라 참회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74</sup> 신의 판단을 이해하는 것만이 새로운 삶을 인도하는 참회로 나아갈 수 있다.

킹의 삶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랑이었다. 그러나 킹의 생을 돌아보면, 그가 운동의 초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정의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

71 W. Beach, “A Theological Analysis of Race Relations,” Chapter 7 in Paul Ramsey ed., *Faith and Ethics: The Theology of H. Richard Niebuhr*, 1957, p. 208.

72 Martin Luther King, Jr., *Where Do We Go from Here: Chaos or Community?*, p. 69.

73 *Ibid.*, p. 70.

74 *Ibid.*, pp. 83, 97.

도 이는 나이버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sup>75</sup> 나이버에 따르면, 사랑이 근본이요 모든 것의 목표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실세계에서 그것은 정의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사랑의 옆에는 언제나 정의가 있읍니다. 우리는 오직 '정의의 도구'만 사용합니다. '설득의 도구'도 사용하지만 때로는 '강제의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sup>76</sup>

이러한 킹의 말은 강제를 사용하여서라도 법적·제도적 수정을 이루어 흑인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정의이며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치현실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다.

킹이 봉고메리의 승차거부운동 초기에 촛점을 둔 것도 정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랑이었다. 정의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일종의 전제조건이었다. 그의 기본적 관심이 사랑의 실현에 있었으므로 결국 킹은 비폭력을 운동의 신앙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비폭력 정신이 흑인과 백인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 실현의 바탕이라고 생각하였다.

킹의 민권운동이 궁극적으로 미국이 나아갈 방향까지 재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미국사회가 지닌 가치정향과 상징에 따라 전개하면서 이를 하나의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公共圈域으로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圈域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부의 인종주의적 백인을 전체 백인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다수의 백인들을 '속죄'하도록 했다. 킹의 운동圈域이 사회 전체의 보다 큰 公共圈域에 의해 수용되었던 까닭에 그는 사회변동의 가장 큰 축이 되는 연방정부의 지지를 계속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 통합주의 정신

1955년 봉고메리에서의 승차거부운동 이전까지 흑인저항은 즉흥적이고 산발적인 모습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단순한 저항으로 흑인의 지위향상, 나아가 인권과 시민권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이는 사회의 구조적 거부와 필연적으로 맞부딪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정부는 흑인폭동을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고 흑인의 사회적 조건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흑인운동은 백인지배구조를 상대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상호적 성격을 지녔다. 백인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백인과의 공존을 도모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인 것이다. 킹의 관심은 후자의 길을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로서, 理想으로서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를 종교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설득하고자 했다. 그의 비폭력 철학은 간디와 예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것이었다. 킹은 간디가 방법을 제시했고 그리스도가 그 정신과 동기를 제시했다고 말하였다.<sup>77</sup>

75 Reind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1960, pp. 51-82.

76 King, *Stride Toward Freedom*, p. 62.

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한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비폭력적 방법이 비폭력의 근본원칙이다.<sup>77</sup> 비폭력 행동의 총체적 힘은 한 사람으로서의 법적·도덕적 권리를 포함하여 부당한 억압자의 권리와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데 기반 한다. 비폭력 방법을 고수하는 인간성은 이러한 절대적 윤리원칙을 주장함으로써만 보존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폭력 행동은 부당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의 이익뿐 아니라 억압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비폭력이라는 용어는 중첩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행동의 방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神學이다. 방법론이자 삶의 방식인 동시에 변화를 위한 사회전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兩者는 비폭력이란 개념으로 통합된다.<sup>78</sup> 킹에게 비폭력은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조정하고 설정하는 시도였다. 비폭력은 惡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항하는 것을 지향했다.<sup>79</sup> 비폭력은 피억압자에게 보복의 역할이 아니라 고통의 역할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고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것은<sup>80</sup> 속죄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갈등은 한 사람이 악인인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가 악인에게 어떤 해도 끼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앙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킹은 기독교의 유일신인 하나님을 정의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은 예수의 모습에 신앙의 중심을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킹 운동노선의 근거가 되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은 예수에게도 하나님은 폭력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물리적 폭력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은 대의를 위하여 스스로 당하는 고통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킹은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부활의 기쁨도 없다고 하면서 고난 없이는 자유도 얻어질 수 없다고 항상 강조하였다.<sup>81</sup>

이러한 킹의 신학적 이해는 그 자신을 다른 흑인이나 백인 기독교도와 명백히 구별하는 근거이다. 킹은 폭력적 분리주의자들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다. 비폭력을 효과적 전략으로 생각한 다른 민권운동가들도 있었으나 그들이 킹과 같이 그것을 ‘고난의 삶’ 그 자체로서 이해한 것은 아니다.

말콤은 흑인에게도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킹의 비폭력주의를 강하게 부정하였다. 그러나 킹은 비폭력이 흑인에게도 도덕적·정치적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킹이 생각하기에 자기방어와 폭력은 구분하기 어

77 *Ibid.*, p. 85.

78 *Ibid.*, p. 102.

79 *Ibid.*, p. 89.

80 *Ibid.*, p. 102.

81 *Ibid.*, p. 43.

82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 128.

려운 것이었다. 물론 킹이 개인이나 가정의 자기방어권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단지 자기방어를 민권운동의 프로그램으로 채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행동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정당한 방어로서의 폭력과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폭력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킹은 말콤의 분리주의가 희망을 상실한 북부 계토지역 흑인들의 감성을 대변할 뿐이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낮게 평가하였다. 단지 상실감에만 기초해서는 흑인사회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킹은 말콤이 비판만 할뿐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백인이 흑인의 노동력을 값싸게 조달받기 위하여 북부도시에 흑인빈민가를 조성했다는 지적도 있지만,<sup>83</sup> 어쨌든 계토에서의 열악한 생활에 환멸을 느낀 흑인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미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기를 원했다. 말콤은 이러한 흑인들의願望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그것을 예리하고 설득력있게 대변하였다. 그러나 킹은 흑인이 미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나고 자란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키지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었다. 아프리카를 향한 탈출의 공동체가 쿤타 칸테의 소망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는 “너, 거기 머물러 있어라”고 하는 것이었다.<sup>84</sup> 킹이 보기에도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가 종교적·정치적 의미에서 킹을 살펴본 것이라면, 이제 사회적·실체적 의미에서 그를 살펴보자 한다. 말콤은 비폭력이 피역압자가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킹은 비폭력이 오히려 억압하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라고 맞섰다. 비폭력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기세를 죽이고 그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당혹하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남부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봉기한다고 하자. 적들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능숙하게 폭력에 대항할 수 있다. 그들이야말로 모든 폭력적 힘을 가지고 있다.<sup>85</sup>

따라서 킹은 오직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이 비폭력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물리적 힘을 영혼의 힘으로’ 또한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자고 하였다. 킹은 버밍햄에서 무서운 경찰견과 잔인한 소방호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83 Darren Cushman-Wood, “Martin Luther King Jr. and Malcolm X: Economic Insights and Influences”, *Monthly Review*, 1993, p. 21.

84 쿤타 칸테의 딸의 이름인 ‘키지’는 바로 “너 거기 머물러 있어라”라는 뜻의 아프리카 말이다. 알렉스 헤일리, 안정효譯, 『뿌리』, p. 274.

85 킹의 1961년 3월 12일자 연설 중에서 인용.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 328.

‘눈에는 눈으로’라는 낡은 정신을 따라간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sup>86</sup>

우선 비폭력은 적의 가슴을 향해 있어야 한다. 특히 비폭력 행동은 반대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sup>87</sup>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대자들이 대항행동을 할 때 부당하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이를 계속한다면 그는 자신의 앞선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비폭력전략에 의하면 비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투쟁동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다른 비폭력 행위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리하여 비폭력운동은 미국사회에서뿐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개방적인 과정을 통하여 도덕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운동은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지배구조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게 마련이다. 킹의 비폭력 저항운동에는 Urban League와 NAACP 등 오랜 흑인운동단체들을 비롯하여 CORE와 SNCC 등 새로 형성된 집단들도 참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폭력 저항운동은 진보적 백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코너드(E. Conard)가 말한대로 “흑인의 지위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 백인들 속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백인은 흑인의 열등한 지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sup>88</sup> 즉 흑인과 더불어 백인도 흑인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백인은 흑인운동에서 흑인과 함께 마주쳐야 할 다른 손뼉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킹은 자유주의자들보다 앞서 있었다. 그에 따르면 비폭력은 지금 당장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최종적인 희망사항이 아니며 폭력은 필요악인 경우라 할지라도 결코 善이 될 수 없다. 비록 비폭력의 기반이 이렇게 적대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 현실적 적용은 놀랍게도 탄력성이 큰 상대성을 발휘한다. 그의 비폭력은 단순한 비폭력이 아니라 대규모로 일어난 ‘대중의 비폭력 직접행동’이었기 때문이다.

킹의 운동에서 최초의 목표는 흑백분리를 정당화하는 법률과 관습의 철폐였다. 이런 목표는 1966년 시카고 캠페인 이전까지 지속되었으나 이후로는 경제적 불평등 상태의 개선이 운동의 새로운 목표로 대두했다. 킹은 그의 표적과 목표를 바꾸었다. 계토에 거주하는 대중의 경제적 상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그 표적도시로 시카고로 선택했다. 이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운동의 방향이 결정되고 결과물도 획득될 수 있었다.

킹은 인종적 부정의에 대한 싸움이 결국 폭력과 비폭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 선택은 명백하다고 하였다.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했고 미국 전체 인구의 10퍼센트에 불과한 흑인이 폭력혁명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결국 백인의 ‘학살본능’을 자극하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흑인이 택할 수 있는 실재적이고 도덕적인 길이라는 것이 그의 확신이요 결론이었다.

이러한 종교적·도덕적·정치적 이유에서 킹은 분리주의자와 말콤의 입장을 또다른

86 Charles V. Hamilton, *The Black Experience in American Politics*, 1973, pp. 160-164.

87 King, *Strength to Love*, p. 113.

88 Nick Aron Ford, *Black in Sights*, 1971, p. 228.

형태의 인종주의인 ‘흑인우월주의’로 간주하고, 백인언론들이 흑인회교를 ‘미움을 파는 장삿꾼’이라고 매도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말콤에 대한 킹의 이러한 평가는 활동 초기의 논평으로서 이후에 그는 이와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킹은 말콤이 엘리자 무하마드와 결별한 후에도 계속 말콤과 함께 하기를 주저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하는 문제 때문이다.

킹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귀한 의미의 비폭력주의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비폭력에 대한 지속적 신념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형성되고 훈련받는다면 비폭력적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sup>89</sup> 일부 사람들이 충분히 비폭력 정신을 흡수·동화한다면 결국 이들이 대중 속에서 그들의 정신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킹에게는 인종차별로 인하여 깨어진 미국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이 아가페적 사랑이었다. 킹은 “사랑의 명령에 따를 때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부정에 저항하고 형제들의 필요에 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킹의 비폭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그것이 킹의 ‘미국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흑인과 백인이 형제와 자매로 함께 살 수 있는 꿈의 장소가 미국이므로 서로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 꿈을 죽이는 일이 된다.<sup>90</sup> 킹은 흑백통합의 원리가 바로 사랑에 있고 오직 사랑만이 인간성을 회복시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sup>91</sup>

킹에 의하면 모든 사회윤리의 궁극적 규범은 여전히 사랑이다. 사랑은 현존하는 정의 체계가 타락하지 않게 해주고, 개인과 사회가 더 나은 정의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며, ‘죄악과 유한성’의 조건 아래서 형제애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킹은 아가페란 모든 삶이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sup>92</sup> 그는 ‘비폭력에의 순례’를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신은 삶의 서로 단절된 측면들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도록 일하신다.<sup>93</sup>

## V. 統合主義 노선의 조직운동—NAACP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격한 흑인들과 ‘흑인권력(black power)’ 주창자들의 영향력은 이전과 달리 많이 소진되었다. 몇몇 조직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지만, 80년대 이후에는 전국적 차원의 투쟁을 이끌고자 했던 활동가들과 ‘흑인권력’의 주창자들은 사실상 잠

<sup>89</sup> *Ibid.*, p. 219.

<sup>90</sup>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 78.

<sup>91</sup> William D. Watley, *Roots of Resistance: The Nonviolent of Martin Luther King Jr.*, 1985, p. 127.

<sup>92</sup> King, *Stride Toward Freedom*, p. 101.

<sup>93</sup> *Ibid.*, p. 106.

적하였다. 마치 동력을 거의 잃은 로켓트가 하늘에서 머뭇거리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60년대에 활동했던 지도자들은 이미 가버렸고 그들을 계승할 새로운 지도자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60년대의 흑인 민권운동기간에 활발히 활동하였던 다섯개의 조직인 NAACP(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Urban League, CORE(Congress of Racial Equality), SCLC(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SNCC(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 가운데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NAACP와 Urban League뿐이다.

설립 당시 기독교적 비폭력을 중심이념으로 삼음으로써 60년대 초반까지 대중성을 많이 확보하였던 CORE는 60년대 중반 이후 그 운동방식과 성격이 변화되었다. 물론 CORE가 현재 그 조직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적 조직체로서 일컬어질 수 없게 된 지 이미 오래이고 지금은 단지 뉴욕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sup>94</sup> 더구나 최근에 자금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혐의를 받은 적이 있어서 운동단체로서의 신뢰도는 더욱 실추되었다.

Urban League는 주로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한 흑인들의 경제적 기회와 사회보장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설립 초기에 비폭력적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던 SNCC는 60년대 이후 말콤의 분리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폭력적이고 호전적으로 변화하였다.

주로 젊은층으로 구성된 SNCC와 CORE는 흑인권력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백인과의 주종관계를 청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단체였으므로 흑인의 자주독립을 빼른 시일 내에 이루기 위하여 흑백간의 연합체 구성을 완강히 거부하였다.<sup>95</sup> SNCC와 CORE는 가두데모 등의 직접행동을 운동전략으로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흑인과 백인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심각한 소요사태와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sup>96</sup>

킹의 민권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던 SCLC는 미국내 흑인교회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대중운동조직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962년 시작된 '빵바구니 작전(Operation Breadbasket)'은 SCLC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서 흑인 노동자와 기업가 그리고 소비자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특히 SCLC는 다른 조직에 비하여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NAACP와 마찬가지로 흑인가족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SCLC는 추구하는 이념과 그 활동상으로 보아 온

94 CORE는 NAACP와 유사하게 백인과 함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창립기에는 오히려 백인의 수가 더 많았다. 특히 창립 당시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평화주의자였던 시카고대학의 대학원 졸업자로서 비폭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CORE는 대중적 기반이 미약한 까닭에 주로 소수의 회원을 중심으로 한 현장중언적 활동방식을 택하여 왔는데, 이로보아 본래부터 조직적 기반이 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Aldon D. Morris, *The Organization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Black Communities Organizing for Change*, 1984, pp. 128-129.

95 張泰翰 著, 「黑人 그들은 누구인가」, 1993, p. 234.

96 W. Augustus Low & Virgil A. Clift ed., *Encyclopedia of Black America*, 1981, p. 612.

건한 운동단체로 알려져있는 NAACP와 흑인권력을 주장해온 CORE의 중간입장이라 할 수 있다.<sup>97</sup>

그러나 SCLC는 킹의 역동적 지도력이 사라진 이후 사실상 이전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으며 현재는 단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활동을 할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SNCC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미국내 흑인운동단체들의 면모를 살펴볼 때 NAACP는 보수적 성향의 운동단체에 속한다. 그렇다면 NAACP가 미국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운동단체로서 오랜 기간 흑인뿐 아니라 백인으로부터도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그 운동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NAACP가 갖고 있는 보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모른다.

70년대에 들어와 NAACP의 회원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NAACP는 재정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NAACP가 백인 자선단체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하부조직체들과 이에 속한 많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 때문이었는데 이제 이전과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최근 NAACP 활동의 강조점도 변화되었다. NAACP는 그간 성공적으로 벌여온 입법로비활동보다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변화된 환경과 더불어 흑인가정의 문제(결손가정)와 마약, 범죄, 10대의 임신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1. NAACP의 설립과 흑백통합의 이념

NAACP 설립의 토대는 사회사업가인 오빙تون(Mary White Ovington)이 1909년 뉴욕에서 진보적 백인과 일단의 흑인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을 하나의 惡으로 규정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흑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었다.<sup>98</sup> 링컨(Abraham Lincoln) 탄생 100주년 기념일(1909년 2월 12일)에 개최된 이 회의의 목적은 “현존하는 惡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저항하는 목소리를 위하여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sup>99</sup> 새로운 흑인운동조직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실제로 설립 이래 NAACP가 전개해온 활동은 꾸준하고도 매우 효과적인 것이었다. 특히 NAACP는 1913년<sup>100</sup>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1915년 이후에는 흑인민권운동의 대열에서 척추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다. 설립된 후 10년이 지난 1919년에 이미 300개의 하부조직과 88,448명의 회원을 보유할 만큼 NAACP의 성장은 매우 빠르게 진

<sup>97</sup> Ibid., p. 228.

<sup>98</sup> 오빙تون(Mary White Ovington) 이외에도 윌링(William English Walling), 모르코위츠(Henry Morkowitz) 등이 NAACP 설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sup>99</sup> Harry A. Ploski, James Williams ed., *The Negro Almanac A Reference Work on the African American*, 1989, p. 260.

<sup>100</sup> 1913년 당시에는 단지 14개의 하부조직(branches)이 있었을 뿐이다.

행되었다. 인종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흑인이 오히려 법적인 피해를 입는 한편 KKK단이 흑인을 위협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많은 흑인들이 NAACP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NAACP의 목표는 ‘모든 것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기회의 균등(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for all)’이다. 주택, 고용, 투표, 교육, 법률, 그리고 여가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국인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분리되거나 차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01</sup> 따라서 NAACP는 어떠한 형태의 분리주의에도 반대한다. 이는 ‘흑인권력노선(black power doctrin)’이 추구한 것과는 명확히 다른 것이었다.<sup>102</sup> 이러한 NAACP의 이념은 1908년 *Independent*紙에 “Race War in the North”란 제목으로 낸 아래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노예제 폐지론자의 정신, 링컨의 정신, 사랑과 기쁨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흑인에게 완전한 정치·사회적 평등의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NAACP 회원 중에는 백인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 오빙تون도 백인이었고 NAACP의 최고책임자가 백인인 경우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흑백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들의 이념을 조직 내에서부터 스스로 실천한 것이다.<sup>103</sup> 특히 1955년부터 22년간 NAACP의 지도자로 일했던 윌킨스(Roy Willkins)의 지도력 하에 ‘인종통합’이라는 大義와 이를 점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겠다는 조직의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확립되었다.

NAACP의 기본입장은 흑인과 백인간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보다 급진적이고 전보적인 흑인들로부터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출범 당시 NAACP는 어떤 의미에서 조절주의자였던 워싱턴에 대한 반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임원들이 거의 백인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단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sup>104</sup> 이러한 모습 때문에 NAACP는 이들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가아비, 엘리자 무하마드, 말콤으로부터 그들과 대비되는 대상으로서 공격을 받았다.

70년대에 들어와 NAACP는 그들 스스로 보다 투쟁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으나 흑인회교등 다른 급진적 집단으로부터 지나치게 온건하다고 비판받기는 마찬가지였다.<sup>105</sup> 하지만 1977년 최고책임자가 윌킨스에서 허스(Benjamin L. Hooks)로 바뀌면서 NAACP가 남아프리카의 흑백분리정책(apartheid)을 비롯한 미국정부의 對아프리카정책을 이전보다 강도높게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sup>106</sup>

NAACP 내에서 수정주의적 경향에 대해 확고한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sup>101</sup> Juan Williams, *Eyes On The Prize: America's Civil Rights Years 1954-1965*, 1988, p. 46.

<sup>102</sup> Harry A. Ploski, James Williams ed., *The Negro Almanac Work on the African American*, p. 39.

<sup>103</sup>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 9.

<sup>104</sup> Aldon D. Morris, *The Origin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p. 13.

<sup>105</sup> Harry A. Ploski, James Williams ed., *The Negro Almanac Work on the African American*, p. 302.

<sup>106</sup> *Ibid.*, p. 276.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천명했으나, 80년대 초까지 NAACP는 특정한 사업 중심의 활동으로부터 보다 투쟁적인 방향으로 전화해왔다. 그러나 90년대를 전후하여 이러한 경향은 다시 보수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NAACP의 구조

강력했던 민권운동의 큰 바람이 잡잡해지기 시작한 70년대 이후 다시 NAACP는 미국사회의 주도적 흑인운동단체로 부각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평가되는 NAACP의 확고한 위치는 90년대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NAACP는 약 500,000명에 달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대부분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이다. NAACP는 원래 구체적인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태동하였으며 그 활동 역시 지역적 수준과 전국적 수준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sup>107</sup>

NAACP에는 현재 약 1,700개의 성인을 위한 분파가 있고 젊은이들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450여개 있다. NAACP의 재정은 주로 회원회비로 충당되며 그 이외에 모금활동, 기부금, 재단활동,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오는 수익금도 있다. 이에 의거하여 NAACP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도 조직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

NAACP의 이념에 찬동하는 사람은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특히 NAACP의 지도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출되었다. NAACP의 지도자들이 부르조아적 가치관의 보고인 흑인 개신교운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NAACP의 철학과 전략을 생활세계적으로 규정짓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변수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보적 백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NAACP 회원의 수는 70년대 아래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80년대 초에는 그 수가 60년대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회원의 감소는 주로 회비에 재원을 의존하였던 NAACP가 재정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월킨스는 회원수가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이 흑인의 폭력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흑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혐오감이 흑인운동에 많은 관심과 동정을 보였던 백인들뿐 아니라 흑인들까지 이탈하게 하였다고 분석하였다.<sup>108</sup>

<sup>107</sup>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에 NAACP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워싱턴에 있는 지부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49개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일본과 독일에도 현지에 주둔하고 미군과 관련하여 NAACP 지부가 존재한다.

<sup>108</sup> Harry A. Ploski, James Williams, *The Negro Almanac Work on the African American*, p. 43.

### 3. NAACP의 활동

NAACP는 설립 이래 私刑(lynch)과 여러가지 형태의 사적·공적 차별, 고용과 병역 문제,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흑인이 받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다. 흑인운동단체로서 NAACP가 목표로 삼은 것은 인종통합주의에 근거하여 흑인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좀더 향상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차원에서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sup>109</sup>

NAACP가택한 운동방법은 시위등 직접적 저항행위보다는 청원이나 소송 혹은 입법 과정에 대한 로비와 압력행사 등 합법적인 것이었다.<sup>110</sup> 또한 NAACP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결국 NAACP가 취한 운동방법은 ‘청원(litigation)’, ‘입법(legislation)’, ‘교육(education)’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NAACP를 다른 흑인운동조직과 구별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NAACP는 법적 방법으로 부정의에 저항하는 엘리트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sup>111</sup> 실제로 NAACP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교사, 성직자, 그리고 정부관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회원 가운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NAACP는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를테면 흑인들에게 유권자등록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또한 그들은 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였다.<sup>112</sup> NAACP는 교육이야말로 법적 평등을 성취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하였다.<sup>113</sup> 그들은 분리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폐해가 바로 교육의 분리라고 생각하였다. 이 때 교육이라는 개념은 제도교육뿐만 아니라 의식개혁까지 포함한다. 이는 교육을 통하여 흑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NAACP의 운동방법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주의이고 흑인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개혁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NAACP가 흑인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흑인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과 불만에 대하여 NAACP는 흑인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스스로 변론하였다.<sup>114</sup>

<sup>109</sup> *Ibid.*, p. 260.

<sup>110</sup> Richard Lentz, *Symbols, the News, Magazines, and Martin Luther King*, 1990, p. 44. 이러한 전략을 실천한 구체적인 예로는, 1917년 미국 켄터키(Kentucky)주 루이스빌(Louisville)에서 흑인과 백인의 거주지를 구분하는 법령에 대하여 저항한 사례가 있다. Sean Dennis Cashman, *African-American and the Quest for Civil Rights 1900-1990*, 1991, p. 22.

<sup>111</sup> Sean Dennis Cashman, *African-American and the Quest for Civil Rights 1900-1990*, p. 32.

<sup>112</sup> *Ibid.*, p. 105.

<sup>113</sup> *Ibid.*, p. 113.

<sup>114</sup> Thomas R. Peake, *Keeping the Dream Alive*, 1987, p. 100.

1987년 레이건대통령이 극보수주의자로 알려진 로버트 보크(Robert Book)를 최고법원 판사로 임명하려 하자 NAACP가 폭넓은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이를 철회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민권활동조직으로서 NAACP가 가진 정치적 역량을 한껏 보여준 실례였다.<sup>115</sup> 이 사건은 레이건의 가장 큰 정치적 패배 중 하나로 간주된다. NAACP는 민권운동조직뿐 아니라 자유주의자, 흑인의 지지에 힘입어 선출된 민주당의원, 중도적 공화당의원 등을 총망라하여 세를 규합하였다.

특히 NAACP는 주거, 고용, 선거, 정치적 대표, 교육, 법률, 행정 그리고 보건 등의 분야에서 흑인이 백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확충하는 데 힘써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률제정과 관련한 로비활동보다 이미 제정된 법률이 과연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116</sup> 이는 법률이나 제도와 같은 형식적 수준에서는 흑인의 시민권이 보장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이상 미국사회에서는 흑인이 법률과 제도 그 자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내린 것이다.

NAACP가 핵심과제로 간주해온 것은 흑인의 정치적·법률적 지위와 관련된 시민적 권리의 문제였지만 그 밖에 흑인거주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예컨데 공동화되어가는 도심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문제와 보다 많은 건강관리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등도 NAACP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sup>117</sup>

흑인의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NAACP는 흑인이 생산한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구하는 ‘공정한 분배(Fair Share)’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NEDCO(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라는 기구를 두어 고용을 확대하고 흑인의 사업을 장려했으며 산업공단을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sup>118</sup>

그리고 NAACP는 정부의 정책과 정부 주도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자의 기능도 하는데, 일방적으로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후원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10대의 임신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이 그것이다.

NAACP는 초창기인 1910년 잡지 *Crisis*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매체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발행부수는 근 100만부에 달한다. *Crisis*는 NAACP의 주요한 선전도구로서 그들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고 흑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효과

<sup>115</sup> Harry A. Ploski, James Williams, *The Negro Almanac Work on the African American*, p. 261.

<sup>116</sup> *Ibid.*, p. 258.

<sup>117</sup> 구체적인 예로 NAACP는 지역수준에서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운동(Back-to-School 또는 Stay-in-School 프로그램)을 전개한 바 있으며 전국수준에서 흑인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NAACP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ACT-SO인데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의 증진, 구직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전과자의 재활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sup>118</sup> Harry A. Ploski, James Williams ed., *The Negro Almanac Work on the African American*, p. 261.

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잡지를 통하여 많은 흑인들이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하여야 할 책임감을 깨닫는 동시에 국가가 그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sup>119</sup>

그리고 NAACP는 1919년 파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의 식민지독립을 위한 범아프리카회의를 지원하였다. NAACP의 이러한 활동은 아프리카의 독립과 미국내 흑인의 시민권 운동을 연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sup>120</sup> 또한 NAACP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apartheid)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였다.<sup>121</sup> 통합주의적 운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중시한다. NAACP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ACT-SO(Afro-Academic, Cultural,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Olympics)'가 있다. 이는 학문과 예술분야에서 흑인 젊은이들의 성취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스포츠분야에서는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흑인들이 학문, 예술, 기타 문화분야에서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백인의 편견으로 인한 장벽 때문이라 전제하고,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편견을 말소하여 흑인이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NAACP의 의의

8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흑인의 시민권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활동해온 NAACP의 성과는 큰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NAACP는 흑인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켰으며 정치적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흑백분리와 차별을 철폐하고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왔다.

계급적·사회적·정치적·종교적 구분 없이 아프로-아메리칸들이 미국사회의 주류로 성장하는 데에서 NAACP가 보여준 역량은 조직접근적 민권활동으로서는 유례가 드문 것이었다.<sup>122</sup> 60년대 이래 정치적 분야에서 흑인들이 선출직으로 진출한 성과는 괄목할 만하였는데 비하여 다른 분야에서 흑백간의 거리는 아직도 아득한 것이었다.

과거를 들이켜 보면 NAACP가 없는 흑인의 투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야말로 NAACP는 미국사회의 흑인운동에서 최초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온 것이다. SCLC의 회원 중 많은 수가 NAACP의 회원을 겸했으며, NAACP는 재정적으로도 많은 흑인 기구들을 돋고 법률적인 지도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흑인운동이 NAACP를 중심으로 집중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NAACP의 전략적 관심과 자존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sup>123</sup>

<sup>119</sup> 특히 뒤 보이스(Du Bois)는 "As the Crow Flies"라고 하는 칼럼을 통하여 백인의 인종차별주의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였다. Sean Dennis Cashman, *African-American and the Quest for Civil Rights 1900-1990*, p. 22.

<sup>120</sup> *Ibid.*, p. 32.

<sup>121</sup> Harry A. Ploski, James Williams, *The Negro Almanac Work on the African American*, p. 261.

<sup>122</sup> W. Augustus Low & Virgil A. Clift ed., *Encyclopedia of Black America*, p. 612.

<sup>123</sup> Aldon D. Morris, *The Organization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Black Communities Organizing*

그렇다면 때때로 흑인으로부터도 보수적 조직으로서 비판을 받아온 NAACP가 미국 내 흑인운동조직 중 가장 많은 지지와 선호를 획득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sup>124</sup> 그것은 상황적 측면과 주체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회주 의적 다원사회를 지향하는 미국사회의 정신적·법적 상황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 양면에서 압력단체와 같은 역할을 해온 NAACP는 변동의 소강상태와 평상적 사회 관계 하에서 어떤 운동체보다 더 꾸준하고 능동적인 활동을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벌임으로써 부문활동으로서의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NAACP가 자신의 역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적 측면에서의 설명이다.

NAACP가 생활세계에 기반한 시민조직으로서 미국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벌여나간 것은 운동의 참여자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것이 바로 부문운동의 특징이며, 운동의 주체로서는 이러한 운동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領域을 지향했던 말콤의 흑인회교운동이나 킹의 圈域의 민권운동과는 달리 일상성을 뚜렷이 한 부문지향운동으로서 NAACP는 비교적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던 흑인들의 참여를 폭넓게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미국사회에서 흑인의 시민적 권리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10년 경부터이다. NAACP와 같은 단체가 등장함으로써 흑인의 시민적 권리를 위한 투쟁의 주체가 교회에서 민간조직으로 변화되었다.<sup>125</sup> 이에 따라 흑인운동이 종교적 올타리를 넘어서 사회적 지평을 확보하고 제도적 수준에서 행하여지게 된 것이다. NAACP는 킹의 민권운동이 하나의 領域性을 넘어 미국현대사에서 가장 큰 圈域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데 도화선의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 VI. 결론: 흑인운동에서의 部門, 領域 그리고 圈域

거리와 감옥에서 선생이 되어 북부의 흑인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말콤은 이전의 어떤 흑인지도자나 운동가보다 더욱 분명하게 흑인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그는 “백인은 악마”라고 하는 분명한 말과 논리로써 백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존재지워질 수밖에 없었던 ‘노예후손’들의 자화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다시 그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말콤이 구사한 종교적 상징·가치와 미국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그의 추종자들을 비롯한 사회 밑바닥의 흑인들에게 매우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백인이나 중류계급 이상의 흑인들은 말콤의 말을 경청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의 종교적 분파로서 흑인회교가 지닌 한계

*for Change*, p. 120.

<sup>124</sup> 1960년대 흑인운동조직의 지지도와 공헌도에 대한 흑인들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단연 NAACP가 CORE나 SCLC 등의 조직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liam Blink, Louis Harris, *The Negro Revolution in America*, 1964, p. 117.

<sup>125</sup>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 8.

와 분리주의운동이 갖는 폭발적 성격으로 인하여 말콤의 운동은 미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상징-가치의 흐름과 어울릴 수 없었던 것이다. ‘악마인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사회가 멸망하리라는 말콤의 맷세지는 이미 미국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公共圈域의 성격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다.

말콤은 領域(흑인회교)을 성공적으로 형성하였지만 상징-가치의 측면에서는 더 큰 보편성과 더 포괄적인 운동세력을 요구하는 圈域의 형성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미래상만을 제시받아온 흑인들에게 말콤은 종교, 정치, 교육이 모두 통합된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말콤은 혁명적 변동지향성을 지닌 宗教領域을 형성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말콤은 말년에 領域에서 圈域으로 그의 가치관을 확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조직인자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領域性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는 領域 간 연대의 폭을 넓히거나 圈域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領域의 조직인자를 더욱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의거한 것이었다. 말콤이 좌파적 접근을 시도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사회주의적 연대로는 흑인의 연대를 이루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흑인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급간의 연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말콤으로서는 아무리 진보적일지라도 백인과 연대하여 운동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sup>126</sup> 이러한 말콤의 주장은 그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킹은 비교적 늦게 領域의 독자성을 의식함으로써 말콤과는 반대의 순서를 밟은 셈이 되었다. 그는 말콤과 달리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킹은 봉고메리와 버밍햄에서의 활동을 거쳐 빠른 기간에 흑인민권운동이라는 하나의 圈域을 형성하였고 그것을 미국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더 큰 圈域의 흐름 속으로 편입시켰다. SCLC를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의 領域이 봉고메리와 버밍햄에서의 활동을 거쳐 미국사회의 기본가치와 신조체계가 만들어낸 圈域과 일치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公共圈域을 형성하였고, 이것이 다시 보다 큰 公共圈域 안에 들어가 활동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킹의 힘이다. 킹은 열세한 ‘노예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면 존엄성을 잃지 않고 도덕적인 설득력을 가지면서 백인이 주도하는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람이다.

60년대 흑인민권운동이 해일처럼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킹이 미국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던 公共圈域에 민권운동의 이념과 운동을 일치시킬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미국사회에서 신교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公共圈域으로서 자리잡힌 ‘미국의 신조’는 독립선언문과 제퍼슨의 정신으로부터 이어져왔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神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보편가치 위에서 주장되어온 킹의 ‘비폭력’은 비록 전 미국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최소한 미국사회에 익숙한 내용이었음에는 틀림없었다.

킹의 흑인민권운동은 말콤의 분리주의운동과 달리 미국사회에 존재해왔던 기본가치

<sup>126</sup> Malcolm X, *Speaks*, p. 136.

를 인정하였으며, 백인이 주도해온 사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백인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백인 역시 흑인민권 운동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었다.

NAACP는 관심별·부문별 활동을 벌이면서 이를 시민운동의 방식으로 전개해나간 흑인운동조직이다. 개방적 部門性을 중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이 인정하는 의제만을 선택하여 운동을 전개한 NAACP는 베타적 宗教領域을 형성한 흑인회교와는 다른 것이었고, 보편적 國域에까지 이르렀던 흑인민권운동과도 다른 것이었다. 말콤의 흑인회교와 킹의 흑인민권운동은 관심별·부문별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성과 통전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수직적 축을 중심으로 하여 총체성을 강조한 흑인회교와 수평적 축을 중심으로 하는 통전성을 강조한 흑인민권운동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둘은 모두 종교적 가치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흑인회교와 흑인민권운동이 지녔던 총체성과 통전성을 변동을 지향하는 운동의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NAACP의 자기계몽적인 시민참정성과 다른 것이었다. 즉 NAACP가 자기계몽적인 시민참정성을 가지고 일상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점진적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던 것에 비하여 흑인회교와 흑인민권운동은 현실에 대한 거부논리를 가지고 변동지향적 민족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민권운동은 이를 실제로 성취하였다.

흑인회교는 말콤과 엘리자 무하마드간의 분열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변동지향적 민족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만약 흑인회교가 변동지향적 민족을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흑인민권운동이 형성한 것과 크게 달랐으리라고 생각한다. 흑인민권운동이 개혁지향적이었던 데 비하여 흑인회교는 혁명적 성격을 예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흑인민권운동을 통전적인 것으로 보고 흑인회교를 총체적인 것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흑인민권운동이 여러 흑인운동단체간의 협의체적 성격을 강하게 떤 것에 비하여 흑인회교는 엘리자 무하마드를 최고정점으로 하는 수뇌부를 주체로 하여 독자적 정치성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를 구현하려 하였던 것이다.

흑인회교와 흑인민권운동이 구사한 상징과 운동의 내용 역시 서로 다른 것이었다. 흑인회교가 흑인의 자기정체성과 분리주의를 강조하고 독립된 정치단위로서의 흑인공동체 형성을 자신의 지상파제로 삼았던 데에 비하여, 흑인민권운동은 정의를 강조하며 백인 중심의 기존 사회체계 속에 인종적 차등 없이 편입·통합되는 것을 최고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노선이 공통적으로 ‘黑人性(blackness)’을 딛고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27</sup> ‘黑人性’은 노예의 후예로서 흑인이 겪어온 인고의 역사와 현재 흑인이 미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현실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형성되었다. 말콤은 미국사회에서 흑인은 회교도이든 기독교인이든 모두 같은 ‘배’ 안에 있다고 하였다. 미국사회에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회교도이기 때문이거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흑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28</sup>

<sup>127</sup> Ibid., p. 122. 콘(Cone)은 이 흑인성(Blackness)를 가지고 ‘Black Theory’를 전개시킨다.

한편 ‘黑人性’은 종교에 대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편으로 ‘黑人性’은 양자의 종교적 차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통합’과 ‘분리’의 차이가 ‘黑人性’이 갖는 절대성으로 인하여 더욱 증폭되는 경우이다. 다른 한편으로 ‘黑人性’은 분리주의와 통합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좁히는 힘으로도 작용한다. 이는 모든 흑인운동은 결국 흑인이 처한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고 흑인의 참된 해방을 이루는 것 말고는 다른 과제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각기 다른 방법을 취했던 말콤과 킹의 운동이 결국 상호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것도 ‘黑人性’이라는 공통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60년대에 흑인운동이 그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흑인운동이 승고한 운동사적 궤적을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黑人性’이 흑인운동의 현실적·역사적 기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기반으로서의 ‘黑人性’은 실제로 사회변동의 에너지가 되는 단계에 이르러 각기 다르게 표출되었다. 민권운동은 ‘黑人性’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운동을 미국사회에서 기독교가 형성한 公共圈域에 편입시키려 하였던 반면 흑인회교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이슬람권에서 형성된 公共圈域에 이를 편입시키려 하였다. 이것은 양자 모두 보다 보편적인 상징-가치체계를 가진 더 큰 집단과 연대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흑인회교와 흑인민권운동 모두 그들이 편입되기 원하는 圈域이 그들의 성격과는 이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험을 한 것이다. 물론 통합주의를 지향한 민권운동의 경우 그러한 모험의 정도가 덜 심각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흑인회교와 흑인민권운동간의 공통점이었음은 분명하다. NAACP는 그러한 모험을 할 의도가 없었다. 이것은 ‘운동’과 ‘활동’의 차이, 部門性과 領域性 및 圈域性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sup>128</sup>

통합주의자들은 여러가지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백인기독교, 중산층 흑인기독교와의 연대를 더욱 확대하려 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領域性을 더욱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圈域性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인종적·문화적으로 상이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이슬람세계를 지향했던 것이다.

흑인회교단의 경우, 이러한 노력을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어느정도 領域 형성의 단계를 거친 말콤이 메카를 방문하여 이슬람세계가 지닌 圈域을 파악한 후 이에 편입되기로 결정하고 그 자신이 이전에 형성하였던 상징과 운동을 스스로 상당 정도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흑인회교단은 하나의 領域으로서 변동의 목표, 운동, 상징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이슬람 圈域이 지닌 목표, 운동, 상징과의 조율

128 James H. Cone, *Martin & Malcolm & America*, p. 194.

129 변동성이 뚜렷한 것을 ‘운동’으로, 현상을 궁정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것을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 동지적 연대의 有無로 혹은 운동의 크기나 일감의 강도와 연속성으로 ‘운동’과 ‘활동’을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도 ‘운동’과 ‘활동’을 분명하게 개념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 까닭은 이 두 개념의 구분이 운동을 이해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단계에서 흑인회교는 종래 말콤이 제기했던 흑인회교의 領域性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백인은 악마’라는 분리주의를 버리고 ‘백인도 형제’라고 함으로써 분리주의에서 통합주의로 선회한 말콤의 변화는 그가 죽기 2년 전의 일이었으므로 흑인회교운동의 측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운동과 상징을 평가하는 데에서뿐 아니라 領域과 圈域의 관계를 찾아내는 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sup>130</sup>

말콤이 상징을 수정한 것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이슬람세계라는 보다 폭넓은 圈域을 의식한 까닭도 있지만, 말콤의 운동이 미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서는 데 필요한 하나의 圈域을 형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까닭도 있었다. 하나의 領域이 기존의 圈域에 편입되거나 스스로 圈域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領域의 상징과 운동의 인자들이 자기가 속한 체제의 보편성에 근접하여야 한다. 말콤이 메카를 방문한 이후 이전의 노선을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圈域을 독자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말콤이 의중에 품어왔을지도 모르는 ‘혁명적 목적’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圈域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혁명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흑인사회 내에서도 하나의 작은 종교집단에 불과하였던 흑인회교가 領域性을 지닐 수 있었던 원인은 상징과 운동의 양면에서 領域의 명확성을 보여주었던 초기 말콤의 놀라운 성과와 흑인회교가 지닌 배타적 총체성이다. 한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흑인민권운동은 흑인회교가 지녔던 총체성과 달리 통전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흑인민권운동의 상징과 운동에서 나타나는 통전성은 기독교세력, 자유주의자, 기득권층, 기타 여러 민권그룹간의 내부적 연대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圈域을 형성한 흑인민권운동이 미국사회에서 더 큰 圈域인 기독교적 흐름과 일치·통합되어 변동역량을 크게 고양시킬 수 있었던 것 역시 운동이 확대될 때에도 운동의 통전적 측면을 일관되게 견지하였기 때문이었다. 작은 圈域과 큰 圈域이 통전적으로 일치함으로써 일어나는 정치변동의 힘은 간디와 호메이니의 운동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통전성은 역사적 종교가 사회에서 발휘한 변동의 힘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치변동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킹이 스웨덴을 방문하기 전후하여 보인 좌파적 개혁성이 이 시기화되었더라면 그것은 이미 확보한 운동의 통전성에 상당한 정도로 혼선을 초래하였다.

NAACP는 기본적으로 부문을 형성하는 운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흑인민권운동과 구분되는 기본적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흑인회교의 경우에도 領域 형성과 圈域 형성의 관심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NAACP와는 구별된다. NAACP는 기본적으로 관심별·부문별 운동이지만 때때로 그 내부에 領域化를 지향하는 에너지가 형성되어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NAACP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sup>130</sup> 한국 학생운동의 경우에도 그들의 領域을 벗어나서 한국社会의 민주화와 정치변동의 圈域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좌파성과 극단성이라는 領域의 특성을 가라앉혀야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조직운동체적 성격을 띈다. 따라서 회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ACP는 흑인회교처럼 흑인의 개인적·집단적 자기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흑인민권운동처럼 대중적 직접행동(mass direct action)을 벌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ACP는 부문별·관심별 조직운동을 꼭넓게 벌임으로써 운동세를 꾸준히 넓혀왔으며, 정치변동기에는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소강기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능력을 촉적함으로써 흑인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줄기차게 이바지하여 왔다.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NAACP가 차지하는 비중은 킹의 측근으로서 그의 지도력을 이어온 잭슨(Jessy Jackson)이 1993년도 NAACP 사무총장후보로 나서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했다는 사실에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잭슨은 현재 미국사회에서 가장 비중있는 흑인 정치지도자이다.<sup>131</sup>

NAACP가 흑인민권운동 그리고 흑인회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部門性, 領域性, 圈域性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들이 정치·사회적 변동기에 각자의 상이한 활동방식을 통하여 어떻게 변동지향적 民을 형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90년대인 오늘날의 변동지향적 民의 모습은 60년대와 다를 것이다. 그리고 60년대 민권운동에서 나타난 에너지를 NAACP와 같은 부문운동에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킹死後 대규모 흑인폭동이 일어난 원인은 그간 누적되어온 좌절을 60년대처럼 변동지향적 民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90년대인 현재에도 領域的, 圈域的 활동은 여전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킹의 민권운동이 밟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그것이 지속될 수 없었던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NAACP와 말콤의 흑인회교를 고려해 볼 때 領域을 탄탄하게 형성하지 못한 圈域의 운동은 쉽게 가라앉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킹의 민권운동이 실패한 원인에는 60년대 이후 미국사회가 많이 변화했다는 사실도 포함되지만, 그의 운동을 흑인회교와 비교할 때 圈域性의 취약함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흑인회교는 60년대에 비록 圈域을 형성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圈域에의 편입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권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약했으나 점차 뚜렷하게 흑인의 領域을 형성함으로써 꾸준히 그勢를 확대하였다. 흑인민권운동을 NAACP와 비교할 때에도 동일한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部門, 領域, 圈域간의 상호관계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흑인운동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표출되는 여러가지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부각되는 가장 의미있는 쟁점의 하나는 ‘圈域의 도움없

<sup>131</sup> 잭슨은 1988년의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출선거에서 90% 이상의 흑인 민주당원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였으며, 대통령후보 예비선거에서도 흑인 민주당대표자의 90%와 백인 대표자의 13%로부터 표를 얻었다. Ben L. Martin, *From Negro to Black to African American: The Power of an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Spring 1991, p. 106.

는 領域의 형성’, 그리고 ‘領域의 도움없는 圈域의 형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흑인회교, 흑인민권운동, NAACP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흑인운동의 모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흑인회교운동은 흑인의 정체성과 독자적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흑인사회 내에서 얼마나 높은가를 포착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이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후의 운동세력에게도 주요한 과제가 되리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나타날 유사 종교적 운동을 포함하여 새로운 흑인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흑인의 자기정체성과 독자적 공동체의 전망을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로, 정치변동기에 흑인민권운동이 의미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領域性을 갖는 동시에 주어진 母社會의 정치적 신조나 가치-상징 구조와 일치하는 상징과 운동을 가져야 함이 입증되었다. 흑인민권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사회에의 통합을 촉구하는 상징, 즉 正義가 가지는 설득력과 사랑에 연원을 두고 비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상징과 운동을 母社會의 그것과 일치시킴으로써 스스로 형성한 圈域을 母社會의 더 큰 圈域과 통합시켰다. 여기서 하버마스(Habermas)가 제기한 公共圈域의 범주 안에서 킹의 민권운동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의 운동은 서구사회에서 정체되어 있는 公共圈域을 재활성화시켜 다시 하나의 흐름이 되게끔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領域이 태동될 때 그 領域이 圈域과 기본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상징-가치적 정향을 지니고 있으면, 이는 정체되어 있는 圈域을 활성화시키거나 領域이 圈域을 운동에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흑인운동이 인종차별의 모순성을 환기시킴으로써 미국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圈域이 활성화되어 운동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문제를 환기시키고 圈域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아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공허한 것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반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제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라면 領域과 圈域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그것이 변동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째로, 운동의 기반이 되는 종교성이 개혁운동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해방운동을 지향하는냐의 여부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때때로 종교는 기득권자의 체제수호에 축복을 내려주는 등 오히려 보수·반동적 가치의 온상이 되기도 하지만 역사종교의 진보적인 신앙적·신학적 입장은 사회개혁과 해방에 기여할 가능성이 많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말콤과 킹의 경우에서 보듯 흑인운동에서도 역사종교의 보편적 공통성은 운동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였다. 말콤이 메카를 방문한 후에 보다 균형있게 운동을 전개한 것이나 킹이 스톡홀름을 방문한 후 오히려 흑인의 문제를 갈등론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역사종교의 역할을 입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NAACP는 민권운동이나 여타 흑인세력이 변동기에 조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평상시의 일상적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흑인사회가 구심점을 잃지 않고 관십별·부문별 시민조직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문지향적 운동은 정치변동의 소강기나 평상시에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지도력을 축적함으

로써 변동기에 領域과 圈域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NAACP와 민권운동 그리고 가아비의 조직활동과 말콤의 관계를 유추해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통합운동의 대표적 조직체인 NAACP와 분리주의의 입장에 서던 가아비의 조직활동을 비교하면, 前者가 부문성을 지향한 데 비하여 後者는 領域性을 지향했다는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운동들은 각기 독자적 특성을 유지한 채 이후 흑인운동이 領域性과 圈域性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90년대인 현재 미국사회에서 흑인운동은 NAACP와 같은 부문지향운동이 중심이 되어 시민운동적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흑인운동이 분명한 쟁점과 운동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현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32</sup> L. A. 폭동과 같은 폭발적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에서 흑인운동의 운동성이 약화된 것은 70년대 이래 많은 흑인들이 선출직에 진출한 결과 흑인사회가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대표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 흑인이 처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흑인운동은 계속 표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분명한 계기가 발생하면 흑인운동은 기본적으로 統合과 分離의 두 축을 變奏·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部門性, 領域性, 圈域性 사이에서 운동의 깊이와 폭을 선택하며 진행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50년대나 60년대와 다른 모습을 떨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흑인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사회운동적인 형태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統合'과 '分離'를 양축으로 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흑인이 개인적 자기정체성과 집단적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출발점은 주류사회(main-stream)에의 통합이거나 아니면 그와의 분리나 하는 두 갈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알렉스 해일리 기록, 金鍾澈, 李宗郁, 鄭淵珠 譯

1978 『말콤 엑스 (上)』,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8 『말콤 엑스 (下)』, 서울: 창작과 비평사.

알렉스 해일리, 안정효 譯

1977 『뿌리』, 서울: 文學思想社.

이신행

미발간, 『한국사회의 정치변동과 영역-관계: 공동체의 정치변동론』(假題).

<sup>132</sup> 오늘날 중도좌파적 성향을 띠는 흑인운동가들도 가족과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흑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60년대와 마찬가지로 90년대인 오늘날에도 흑인문제를 인종문제로만 파악하는 민권운동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

## 張泰翰

- 1993 『黑人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韓國經濟新聞社.
- 존 헨릭 클라크, 김영일 역
- 1982 『말콤 엑스와 검은 혁명』, 서울: 일월서각.
- Aldon D. Morris
- 1984 *The Organization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Black Communities Organizing for Change*, New York: The Free Press.
- Archie Epps ed.
- 1968 *The Speech of Malcom X at Havard*, New York: Morrow.
- Benjamin Goodman ed.
- 1971 *Malcom X The End of White World Supremacy*, New York: Merlin House.
- Ben L. Martin
- 1991 *From Negro to Black to African American: The Power of an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ume 106 Number 1, Spring.
- Cedric J. Robinson
- 1983 *Black Marxism*, London: Zed Books.
- C. Eric Lincoln
- 1984 *Race Religion and Continuing America Dilemma*, New York: Hill and Wang.
- 1974 *The Black Experience in Religion*, 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 Charles V. Hamilton
- 1973 *The Black Experience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G. P. Putnam's Sons.
- Craig Calhoun
- 1992 "Introduction: Habermas and the the Public Sphere", Craig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IT Press.
- Darren Cushman-Wood
- 1993 "Martin Luther King Jr. and Malcolm X: Economic Insights and Influences", *Monthly Review*, May.
- E. U. Essien-Udom
- 1970 "Garvey and Garveyism", Eric Foner ed., *America's Black Past: A Reader in Afro-American History*, New York: Harper & Raw.
- Harry A. Ploski and James Williams eds.
- 1989 *The Negro Almanac A Reference Work on the African American*, New York: Gale Research Inc.
- James H. Cone
- 1992 *MARTIN & MALCOM & AMERICA*, Marknoll, New York: Orbis Books.
- James M. Banner Jr., James M. McPherson, Laurence B. Holland, Michael D. Bell, and Nancy J. Weiss

- 1971 *Black In America*,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Juan Williams
- 1988 *Eyes On The Prize: America's Civil Rights Years 1954-1965*, New York: Penguin Books.  
Jürgen Habermas
- 1989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IT Press.  
Keith D. Miller
- 1993 *Voice of Deliverance: The Language of Martin Luther King Jr. and Its Sources*, New York: The Free Press.  
King
- 1958 *Stride Toward Freedom*,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Martin Luther King, Jr.
- 1967 *Where do we go from here: Chaos or Community?*, Boston: Beacon Press.  
Nick Aron Ford
- 1971 *Black in Sights*, Waltham, Massachusetts/Tronto: Xerox College Publishing.  
Reinhold Niebuhr
- 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Richard Lenz
- 1990 *Symbols, the News, Magazines, and Martin Luther King*, Baton Roun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Sean Dennis Cashman
- 1991 *African-American and the Quest for Civil Rights 1900-1990*,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Tom Wicker ed.
- 1985 *Report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 New York: The New York Times.  
W. Augustus Low and Virgil A. Clift eds.
- 1981 *Encyclopedia of Black America*, New York: Mc Graw-Hill Book Company.  
W. Beach
- 1957 "A Theological Analysis of Race Relations", Chapter 7 in Paul Ramsey ed., *Faith and Ethics: The Theology of H. Richard Niebuhr*, Harper and Brothers.  
William D. Watley
- 1985 *Roots of Reistance: The Nonviolent of Martin Luther King Jr.*, Valley Forge: Judson Press.  
William J. Wilson
- 1973 *POWER, RACISM, AND PRIVILEGE*, New York: The Free Press.

## Black Movements in America —Integrationism and Nationalism—

Shinhaeng Lee

In defining black movements in America, this paper postulates that the concepts of 'realm' and 'public-sphere' are useful for analyzing social movements.

The first aim of this paper is to grasp the main streams of black movements in modern American society by using the two concepts mentioned above.

The main streams of black movements in America can be roughly classified into 'integrationism' and 'nationalism', which have had a distinct and continuous influence on black movements.

All social move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puts emphasis on 'symbol-value' and the other on movement organization.

This paper analyzed such cases as Marcus Garvey, Malcolm X, Martin Luther King Jr., and the NAACP. Martin Luther King Jr. emphasizes 'symbol-value' based on 'integrationism' and the NAACP applied 'integrationism' to organizing movement group.

The argue of Malcolm X and that of Marcus Garvey were commonly based on 'black nationalism', but they are not completely identical. While Malcolm X focused on 'symbol-value', Garvey tended to give weight to 'separatism' in organizing movement group, the UNIA.

이신행,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소 :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Tel : 361-2947(O), 313-2415(H)